

나는 혹시 두 마음이 아닐까?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자

영성 훈련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완전함이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신자라면 “믿음으로 의심 없이”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야고보서는 ‘완전하라’는 사고방식을 뒷받침하는 듯하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길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약 1:6-8).

야고보서의 일부는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기도에 대한 내용은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게 보인다. 우리 중 누가 진짜 완벽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기도는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야고보서의 말씀이다(7절). 이 절실한 질문에 답하려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파악해야 한다. 야고보가 도대체 누구를 염두에 둔 것인지를 이해하면 기도에 대한 그의 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누구인가?

야고보는 “두 마음”이라는 용어(dipsychos)를 사용한 유일한 신약성경 저자이다. 하지만 그는 그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야고보서 맥락에서 그리고 동시대 유사한 글과 비교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미성숙한 신자일 수 있다. 이는 야고보가 믿음에 있어서 무엇



보다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사실과 일치하는 견해이다(1:4; 3:2). 그렇다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직 믿음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해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더 나은 해석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불신자로 사는 위선자로 이해하는 것이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두 마음은 시편의 “두 마음”과 유사하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이다(시 12:2 참조). 시편 119:113에서 시편 저자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랑을 선언한다. 야고보가 “두 마음”이라는 단어를 시편에서 가져와서 사용한 건 아니지만,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 이

단어를 쓴 거 같다.

비슷한 또 다른 개념은 “두 입술”인데, 비정경 유대교 문헌(시락 5:9)과 신약(딤후전 3:8)에서 발견된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혀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나뉜다(약 3:9 참조). 그들의 말을 들으면 믿음에 대한 외적 주장과는 별개로 실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 잘 드러난다(약 2:14; 3:10-12 참조).

위선으로서의 두 마음

간단히 말해서, 야고보는 종교적 위선자들을 지칭하기 위해 “두 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형제 예수를 따라, 야고보는 종교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하게 대한다. 예수님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

리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셨다(사 29:13; 마 7:6-7).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다(마 23:27).

야고보는 진정한 헌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약 1:26-27).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4:4). 이것들은 야고보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두 마음에 대해 경고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두 마음을 갖는 것은 온 마음과 혼과 정신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큰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신 6:5; 마 22:37-38).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3면으로 계속)



전도자의 면도날: 회의론자를 바꿀 강력한 질문

최종 목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당신은 혹시 코벨소 또는 고슴도치가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코벨소처럼 일단 머리부터 들이박으며 돌진하는 걸 좋아하는 다. 한편으로는 몸을 둥글게 말며 기회를 노리는 고슴도치처럼 일단 안전한 곳으로 물러서는 사람도 있다. 이 둘이 매우 달라 보이지만 뾰족한 무기가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닮았다. 회의론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 회의론자 중에는 진지하게 호기심을 보이며 가까이 다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대답을 듣고도 마치 그 대답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때때로 회의론자는 고슴도치이다. 그들의 가시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데 사용된다. 당신은 코벨소를 만날

수도 있다. 당신을 쫓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다가오는 사람이 바로 코벨소이다. 두 경우 모두 다 회의론자들이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이다.

가시 돌진 질문의 다양성과 모호성 때문에 선의를 가지고 대화를 이어가던 그리스도인은 종종 조언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룹 메시지를 보낸다.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답을 구체화하기도 하고 조언을 받아서 회의자들과의 효율적인 소통에 필요한 매력적인 답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는 회의론자에게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애써서 만든 답을 전달한다. 그리고 회의론자의 인생이 바뀌는 극적인 순간을 간절히 기대한다.

(3면으로 계속)



시론 백승철 목사

2면



푸른초장 정기태 목사

4면



기독교 명저문의초대 이윤석 목사

8면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아리 | 시년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i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주문: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일일 공개 세미나

금번 Dunamis Sophia University 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하여 교회와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제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네 분의 강사분들을 모시고 일일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세미나에 귀중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제 : 성경적 제자의 도 (Biblical Discipleship)

- 일시

2024년 11월 5일 (화) 9:30 AM - 4:10 PM
- 장소

새누리 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 강사

박성근 박사, 이순정 박사, 김정원 박사, 이윤호 박사
- 대상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
- 연락처

714-732-3355 (D. S. U.)
- 등록

50명 제한 (등록비 무료 & 점심 제공)

주최 : Dunamis Sophia University



박성근 박사
새누리 교회 담임 목사



이순정 박사
미국 작은 불꽃 선교회 대표



김정원 박사
전 네비게이토 선교회 Staff
새언약 교회 담임 목사



이윤호 박사
두나미스 영성상담치유 연구원 원장

시론

노벨문학상 너머 그 길을 가다
2024 Nobel Prize in Literature



백승철 목사
(사모하는교회, 시인, 문학평론가)

필자는 지난 주 스웨덴 스톡홀름(Sweden Stockholm) 시청사(Stockholm City Hall)를 방문했다. 바로 그 시청사는 매년 노벨상(Nobel Prize)이 수여되며 연회가 열리는 곳이다. 시청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스톡홀름 시청에서 고용된 가이드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 개인으로 들어갈 수 없다. 눈에 들어온 텅 빈 1층 공간은 뽕 뚫린 허허벌판 풍경이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바로 그곳이 노벨상을 수여하는 장소라는 것을 인식했다. 12월 10일(노벨이 세상과 작별한 날)이면 그 공간이 세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화려한 모습으로 바뀐다. 노벨평화상은 같은 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수여된다. 그리고 어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접했다. 순간의 시간이 포개지는 감동이 벅차다.

알프레드 베른하르트 노벨(Alfred Bernhard Nobel)은 1833년 10월 21일 태어나 1896년 12월 10일 이탈리아 산레모 별장에서 평생 독신으로 63세로 세상을 떠났다. 노벨은 생전에 355개의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다이너마이트, 유전개발로 성공 해 유럽 최대 부호가 되었다. 노벨이 세상을 떠나기 전 1895년 11월 25일 작성한 유언장 내용에 따라 노벨상이 제정되었다. 노벨의 유언에 의해 1901년부터 시작된 노벨상은 물리학, 화학, 문학, 생리 의학, 평화 총 다섯 부분으로 시상하다가 1969년 경제학이 추가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노벨상의 제정취지는 문명 발달에 학문적인 기여와 복리증진에 가장 큰 업적을 쌓은 사람을 찾아 수여되는 상이다.

이번에 수상하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은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우선 문학상 우선순위 10위 안에 들지 않았다. 예상 밖 상황이었다. 2000년 한국인으로 최초 노벨(평화)상 수상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한강 작가는 한국인으로 두 번째 노벨상 수상 작가이며 여성으로 한국인 첫 번째 수상, 최초의 문학상 수상자이다. 아시아에서는 인도, 이스라엘, 일본, 중국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왔는데 모두 남성작가였다. 여성으로 한강은 아시아에서 첫 번째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되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40번째, 아시아에서는 5번째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나라가 되었다.

이번 노벨문학상을 발표하면서 한림원은 한강 작가의 7 작품 <그대의 차가운 손> <채식주의자> <희랍어 시간> <소년이 온다> <흰> <작별하지 않는다> <회복하는 인간>의 짧은 평을 담았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작 산문,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각 작품에서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한다.” 노벨문학상 발표 후 베스트셀러 순위가 1-9까지 한강의 작품으로 채워졌으며 판매 부수가 수천 배까지 뛰어 올랐다.

노벨문학상이 전파를 타고 나서 뒷이야기도 무성하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경기도 육청이 불은 성교육 유해도서로 폐기 처분했던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 5.18 민주화운동 당시 목숨을 잃었던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소년이 온다>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작품이었다. 뿐만 아니라 김규나 작가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 계정에 “(노벨상) 수상작가가 써 걸긴 역사적 트라우마 직시를 담았다는 소설들은 죄다 역사 왜곡이다”고 정의했다. 아쉬운 것은 소설은 역사서가 아니다. 소설의 특징 중 허구성도 있다. 소설은 소설로 읽어야 되는 길을 잃은 듯하다.

노벨문학상이라니, 아직 가슴 뛰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 문학을 하는 필자로서 노벨문학상과 비교되는 기독교문학상을 아직도 끈질기게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다. 노벨문학상은 노벨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상이다. 이름의 가치가 이렇게 힘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으로 주어지는 상도 있다.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4:8). 자조 섞인 결론이지만 필자는 노벨문학상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이름으로 상 주심을 바라보며(히 11:26) 묵묵히 노벨문학상 너머 그 길을 가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www.epipodo.com

언덕 위 하얀 집

살롬이 벽돌이 되어 나와 이웃의 삶에 임하는 그 나라



빈센트 반 고흐가 프랑스 아를의 노란 집에 살았다면, 난 언덕 위의 하얀 집에서 살았다. 상상 속에서 말이다. 그 집을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 처음 전과 책에서 본 기억이 난다. 1960-70년대의 ‘전과’는 교과서 문제의 풀이 법과 해답지가 담긴 두꺼운 교재였다. 전과 앞 쪽에 몇 페이지에 걸쳐 다양한 사진들이 실려 있었다. 그때 나를 완전히 매료시켰던 풍경 사진이 하나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지평선에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고 가운데로 들판을 가르며 넘실거리는 시냇물이 흐르고 아득히 멀리 구름에 쌓인 산봉우리들이 징검다리처럼 내려앉은 곳이었다. 그 언덕 위에 작은 집 한 채가 있는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였다.

종이 사진에 있던 그림이 몇 년이 지나 꿈틀대며 나에게 찾아왔다. 마리아 수녀와 아이들이 춤추며 노래를 부르던 그 푸른 언덕과 폰 트랩 대령과 그 가족이 자유를 찾아 넘던 그 잘츠부르크의 풍경들이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다가왔다. 나는 명절 때마다 TV로 보고, 영화로도 몇 번씩 보고 나중에 DVD로도 보며 내 가슴 속에 그려 넣었다. 내 어릴 적 그린 모든 풍경화는 언덕 위의 하얀 집밖에 없었다.

나는 어린 시절, 남산 아래 오밀조밀 대문도 없이 집 안이 다 드러나 보이는 산동네에 살았다. 누구나 서로 알 수밖에 없는 정겨운 곳이었지만 이웃 아줌마 아저씨의 다투는 소리까지 온 동네에 찌뽕뽕 다 들리는 마음이 편치 않은 곳이기도 했다. 그 다툼이 심해지면 숨이 막혀오고 어떨 때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흐느끼 수밖에 없었다. 내 부모님도 경건한 성도였지만 가난에서 오는 다툼을 결코 피해 가지는 못하였다. 부부 싸움이란 게 끝에 가서는 아이들을 혼내는 걸로 끝날 때가 다반사였다. 이 반복된 싸움은 어린 나에게 터지고 굳기를 반복하는 생채기 딱지처럼 깊게 내려앉아 버렸다.

이런 나에게 사진 속 유럽의 조용한 마을은 도피처였고 천국이었다. 나는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 누워 뒹굴기도 하고 뛰어놀아야 현실을 잊을 수가 있었다. 1970년대 말 미국의

전원 드라마 ‘초원의 집’이 TV에서 방영되었다.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야 내가 원하던 세상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이 드라마에는 먹는 장면이 유독 많이 나왔다. 주근깨 소녀 로라네 가족의 밥상 위엔 마른 빵 조각과 옥수수 수죽만 덩그러니 있는 장면이 자주 나왔다. 어떨 때는 삶은 감자와 소금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겨우내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는 로라 가정의 모습은 우리 동네의 여느 가정과 다름없어 쉽게 동화되어 버렸다. 그런데 아이들은 미안해하는 부모를 바라보며 마른 빵을 맛있게 입에 넣고 이를 바라보는 아버지 찰스의 측은하고 인자한 눈빛은 너무 낯설어 처음에는 이상하기만 했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이 시간이 갈수록 떠오르며 거실에 걸어놓은 따뜻한 가족 사진처럼 지금도 내 마음에 박혀되어 걸려있다.

내가 어머니에게 자주 혼났던 이유 중 하나는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 때문이었다. 아버지와 닮은 후에 어머니는 장남인 내게 위로를 받고 싶으셨나 보다. 그러나 어린 나는 바짝 얼얼불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때마다 어머니는 나를 보시며 “지애비 닮아 인정머리라고는” 이라고 말쑤하셨다. 나는 그런 현실이 싫어 언덕 위의 하얀 집으로 숨는 시간이 길어지면 갔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크면 나 같은 아이는 현실에서 도망치기 마련이다. 내가 처음 이런 집에서 못살겠다고 외치고 뛰쳐나온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그날로 붙잡

혀 들어왔지만, 그 후로 난 여러 번 집을 나가야 숨이 쉬어졌다.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지치도록 걸어가 끝이 안 보이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작고 하얀 집을 하나 그려 넣고 해가 질 때까지 바라보다 길 위에서 잠들기도 하였다. 잠이 들면서 다시 눈을 뜨지 않았으면 했다.

그렇다고 그때의 삶이 항상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암송 대회가 열려 마태복음 5, 6, 7장을 외워야 했다. 산상수훈의 구절들이 어려워 마치 어린아이가 추상화를 보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마태복음 5장 14절)는 편하게 다가왔다. 단지 언덕 위의 하얀 집과 같은 산 위 동네라는 이유로 말이다. 열 살 꼬마였던 나에게 산 위의 동네는 그냥 내가 살던 동네처럼 느껴져 마음에 남겨졌다.

나는 어린 시절을 집과 이웃과 교회를 구분할 필요 없는 산동네에서 보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교회로 달려가 친구들과 실컷 뛰어놀다 저녁 먹을 때나 되어서 돌아오곤 하였다.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에 가 그 옆에 누워기도 소리를 들으며 잠자는 게 너무나 편하고 좋았다. 베드로, 요한이란 이름이 친척 아저씨 이름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졌고 동네 아저씨들이 다 김집사, 이 집사로 불렸고, 그분들 집에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 끼니를 때웠으니 내 집과 이웃 집, 교회의 개념이 그리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10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 886-4400 (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 EASTER,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Day.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교회인쇄물 · 현금봉투 · 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G2G MISSION CENTER

(가족중심 자비량선교회. 미국비영리단체 등록)

- * 자녀교육 및 결혼 가정세미나
 - * 감사나눔 세미나 및 간증설교

[세 자녀가 하버드와 동부 명문대학에 진학, 졸업 후 전문직 취업과 20대 중반 결혼시킨 경험과 노하우 공유]
- <강사 이훈구 장로 약력>

 - * 목회학 석사 및 선교학 박사
 - * G2G Mission Center (G2G선교회) 설립 및 대표(2013.1 - 현재)
 - * 감사나눔 공동체 :
 - * 감사나눔리더(임원) (2023.8-현재)
 - * 저서: 크리스천 자녀교육, 결혼을 어떻게 시켰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세미나, 간증설교 문의 : g2gmission@hot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9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49th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1. 총회일시: 2025년 5월 27일(화) - 30일(금) (3박4일)

* 주제: “Here I stand, help me God”

2. 총회장소: Grandover Resort & Spa, A Wyndham Grand Hotel
1000 Club Rd, Greensboro, NC 27407
(336)294-1800

3. 등록비: 총회 등록비는 아래와 같습니다(미화 USD)

객실구분	등록마감일 및 참가비		
	1차(1/31)	2차(2/28)	3차(3/31)
2인1실(1인)	\$ 495	\$ 545	\$ 595
2인1실부부	\$ 970	\$ 1,070	\$ 1,170
1인1실	\$ 870	\$ 920	\$ 970
원로/공로 목사	(2인 1실)	\$ 248	\$ 298
	(부부)	\$ 743	\$ 818
	(1인 1실)	\$ 643	\$ 693

총회장: 권혁천 목사
서기: 김대업 목사

준비위원장: 김승기 목사
준비위원회 서기: 박덕길 목사
준비위원회 총무: 박봉근 목사

4. 유의 사항

- 개인적으로 속소를 정하시고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등록비 \$250을 납부하셔야 하며, 조식을 제외한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반 자녀 1인당 \$200(18세 이하)
- 총회 결의에 따라 각 노회의 공로 및 원로 목사님의 등록비는 50% 할인해 드립니다.
- 총회 파송 선교사일 경우에는 총회 기간내 등록비용을 부부 \$200 할인, 개인은 \$100 할인해 드립니다 (1차 등록일 경우 선교사 부부 \$790, 개인 \$395). 선교보고와 기타 일정을 위해 가능한 1차 등록까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그린스보로 공항(GSO)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만 차량이 운행됩니다.
- 49회 총회 홍보 홈페이지(www.kapc.org)를 통하여 온라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3차 등록 마감일인 3월 31일 이후에는 호텔 숙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등록 후 총회 불참시에는 호텔과 계약상 등록비를 반환해 드릴 수 없습니다.
- 총회 당일 접수는 오후 2시부터, 저녁식사는 5시부터이며 개회예배는 오후 7시에 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총회 총무와 총준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통시 통역: 영어권 총대를 위하여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5. 등록/송금 안내

총대 등록비(Check 또는 Money order)와 신청서는 총준위 회계(심필중 장로)에게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수취인 (Pay to the order) : KPCG
- * 주 소 :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Greensboro (Att: Elder Phillip Sim)
3523 Johnson St. High Point, NC 27265

Zelle로 송금하시는 경우 보내시고 나서 총준위 회계 심필중 장로에게 반드시 카카오톡이나 문자 message 또는 e-mail로 등록자 성함(개인 or 부부)/교회 이름/소속 노회/보내신 금액을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joosarang5@gmail.com 336-653-0139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나는 혹시 두 마음이 아닐까?

(1면에서 계속)

한 마음과 기도 응답

야고보서 1:5-8로 돌아가서,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것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마음 상태가 기도 생활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5:16 참조).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다(마 7:11; 눅 11:13).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의 기도에 결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게 성경의 분명한 경고이다(예: 시 66:18; 73:1; 145:18-20; 잠언 15:8, 29; 28:9, 13; 사 1:15-16).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 없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

할 것이다. 믿음에 대한 주장이 믿음의 현실을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약 2:14).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면에서 불안정하고 믿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엡 3:17; 4:14 참조).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근본적인 균열이 있는 사람들, 즉 야고보가 간음하는 사람으로 묘사한 이들(약 4:4)은 기도 응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두 마음을 가지는 대신,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다(마 5:8). 여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일편단심 헌신이 들어있다(시편 86:11).

참된 기도

참된 신자가 두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엄밀히 말해서, 그렇지 않다. 참된 신

자는 두 마음을 가진 근본적으로 분열된 위선자가 아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야고보는 이 범주를 사용하여 참된 신자들이 더 성숙해지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진정한 신자는 야고보의 경고에 충실하게 응답하고 위선적 삶이 주는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에 격려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명령을 기뻐 행하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요 15:7, 10 참조).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헌신과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나타난다(약 2:1).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는 두 마음이 전혀 없는 분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로지 그 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받으신다.

by Brandon D. Crowe, TGC

목회단상

아빠, 기도했어요



곽덕근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담임)

애틀랜타에서 자동차로 75번을 타고 북쪽 방향으로 두 시간 정도 달려가면 차타누가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Lookout Mountain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의 지하 350m에는 Ruby Falls라는 아주 유명한 자연동굴폭포가 있습니다. 루비폴은 레오 램버트라는 사람이 1928년에 처음 발견하고, 1930년에 자기 아내와 함께 다시 찾아와서 아내의 이름을 붙여 루비(Ruby) 폭포(Falls)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내가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루비폴이 유명하다고 해서 가족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동굴을 들어서서 좁고 어두운 길을 조심스럽게 들어가다 보면 어마어마한鍾유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조명이 비추는 곳을 바라보면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아름다운鍾유석들이 보이는데, 그 모양을 따서 Donkey, Bacon, Niagara Falls, Stake and potatoes 등등의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동굴 천장에는鍾유석이 마치 고드름처럼 주렁주렁 달려있고, 심지어 위아래서 만나 서로 닿아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신비함에 감탄하며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가다 보니 마침내 동굴 끝에 있는 폭포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폭포 앞에서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잠시 숨을 돌리고 있던 바로 그 때 옆에 있던 미국 여자 한 분의 외마디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가 끼고 있던 보석반지의 알이 빠져서 땅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저앉아 찾아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둡고 바위 투성이인 동굴 바닥에서 작은 보석 알갱이를 찾는 것은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두 사람씩 찾기를 포기하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 역시 조금 찾아보다가 어려울 것 같아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 때 당시 중학생이었던 첫째 딸 하경이가 두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습니다. "I found it!"

잃어버렸던 보석 알을 받아 든 그 여자 분은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하경이에게 깜깜한데 어떻게 찾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하경이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빠, 기도했어요." 나와 아내는 하경이의 대답을 들으며 "하경이가 우리보다 낫네" 하며 웃었습니다.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살전 5:16-18). 그러나 목회를 하다보면,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을 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나 기도하지 않고, 기도 응답이 늦어지니까 기도하기를 멈추고, 심지어 자기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기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에 관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15).
3.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마 7:7-11).
4.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십니다(엡 3:20).
5.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한 후에는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다"(요 11:41)라고 미리 감사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revkwak@gmail.com

전도자의 면도날: 회의론자를 바꿀...

(1면에서 계속)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아예 신경 자체를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질문의 중요성 자체를 잊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러고는 언제 답을 들었느냐는 듯 또 다른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뿐이다. 당신에게는 조언자들에게 또 한 번의 그룹 메시지를 보낼 일이 생겼다.

애매한 질문에 쉬지 않고 대답하는 건 힘든 일이다. 광범위한 주제에 정통해야 할 뿐 아니라 틈새 질문에까지 답할 수 있어야 해서다. 그건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더 나은 방법이 없는 걸까?

인식론적 면도날: 철학 지름길

철학자들은 지식 체계를 다루기 위한 지름길을 확립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론적 면도날이라고 부른다. 면도날의 기능은 불필요한 설명 정보를 깎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도구 중 가장 유명한 게 오컴의 면도날이다. "실체가 불필요한 내용으로 덧입혀져서는 안 된다." 쉬운 말로, 더 간단한 설명이 있는 경우에 굳이 불필요한 부분을 설명에 추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컴의 면도날을 사용하면 불필요하게 복잡한 각종 해결책을 깎아낼 수 있다.

회의론자는 그리스도인과의 대화에서 인식론적 면도날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칼 세이건이 자주 쓰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라. "엄청난 주장에는 엄청난 증거가 필요하다." 히친스의 면도날은 또 어떤가? "증거 없이 주장되는 내용은 얼마든지 증거 없이도 기각될 수 있다." 깎아내고 깎아내서 딱 한 문장만 남긴 것이다. 인식론적 면도날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가만이 이해하는 영역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는 것이다. 신무신론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주장에 일일이 대답하기보다는 아예 대답해야 할 내용의 양을 줄였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이 면도날을 위선적인 방식으로 적용했다.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특히 히친스의 경우에는 면도날 그 자체를 하나의 주장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면도날의 역할은 어떤 주장의 나쁜 부분을 깎아내는 것이지, 아예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다 깎아내는 게 아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의 인식론적 면도날 사용방식은 말 그대로 오만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뫼매주의에 빠진 행태였다.

전도자의 면도날

보다 더 생산적인 대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도 우리만의 면도날을 적용할 수 있다. "내가 이 질문에 답한다면, 당신은 오늘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이토록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최소한 그들은 잠시 멈추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면도날이 가진 아름다움이다. 여기에는 무장 해제의 효과가 있다. 회의론자에게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그들의 동기가 순수한가? 그들이 진영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그들에게 이젠 단지 스포츠에 불과할까?

회의론자가 아니라고 말하면, 부드러운 후속 질문을 던져야 한다. "아니, 왜 안 되죠?" 그들의 다음 말이 중요하다. 당신은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이제 나오는 말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지 않는 진짜 이유에 가깝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전도자의 면도날을 사용하면 코뿔소의 뿔이나 고슴도치의 척추까지 깎아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신무신론자들이 저지르는 것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이 면도날을 쓰는 이유는 대화를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

화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이 질문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다. 거만한 태도로 정신 분석을 하려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의론자들의 방어적인 가시를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괴로움을 주는 원인을 찾아내어 부드럽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 기독교의 주장 중 어떤 부분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비로소 그들의 진짜 속내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면도날을 쓴다고 해서 당신이 회의론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의론자들이 결코 멸망하는 죄 많은 인류의 상태를 합리적으로 넘어설 수 없다는 바울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전 1:18-20). 호전적이거나 무관심한 회의론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끝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더욱 모호한 추측을 부추길 뿐이다.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대화하기

이 면도날을 사용함으로 우리는 변증의 최종 목표, 전도의 최종 목표를 강조한다. 우리가 바라는 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 목표는 논리적인 주장에 대한 승인이 아니다. 상대가 충성하는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한 번의 대화에서 전도자의 면도날을 몇 번이나 사용해도 된다. 고슴도치는 가시가 많고 코뿔소는 여러 번 돌진할 수 있다. 당신의 질문에 상대는 수도 없이 '아니오' 하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면도날의 요점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내용은 깎아내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보면 언젠가 '예'라는 대답이 나올지 모른다. 심지어 "아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대답을 만날지도 모른다.

by Joash Arnold, TGC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강좌: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891, www.thanksgivingchurch.com 66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영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30(평상) 금요찬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 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Tel: (323) 481-2779,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결혼이예배: 오후 2:00 영어권 (점소:KDC, 컨퍼런스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p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pcja.org 170 Bir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2:00 영아회중: 오전 9:00, 11:00 영어회중: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 Tel: (949) 854-4010 / bethelch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베델리자교 공동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 (213) 389-1827 / www.wmcs.com / worldmissionchurch8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실바지 사랑교회 (Seal Beach Se-Rang Church)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침례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56 실바지 리저널드 Oubhouse 3 Lobby(주일) Oubhouse 3 room 1(1부)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8, Cel: (213) 215-86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목숨연합감리교회협동목사) 성당사역: (월-금) 오전 9:45 (토) 오전 9:00 사역대상: 1. 영아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 사역 Tel: (213) 700-9828, www.elpisfamily.com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성경연구: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온라인기도회: 24시간 온/오프 Tel: (714) 446-6200, www.gracein.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새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후 5:3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d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월-일): 오전 11:45 영-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목요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c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rs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 M 예배: 오전 9:45(101층)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 M 찬양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gc.org 1966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평강교회  담임목사 : 송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FC-동요로운 삶(주일): 오전 9:30 화요일 3:30(토) : 매월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리기도: 오전 9:00 TFC-성경을 읽는날(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 오전 6:00 Tel: 213-38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사의 묵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스айд장로교회)



앞이 캄캄한 일을 당할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오래전에 나는 우주에 대한 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 그 동영상은 지구가 우주에 비하여서 그 크기가 어떤가를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처음엔 지구의 멋있고 큰 모습이 나왔다. 그런데

지구가 둥근 모양이 되면서 그 옆에 달이 나오고 그 옆에 지구보다 큰 목성 등이 나왔다. 그것을 보니 새삼 태양계 중에서는 지구가 작은 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지구가 태양계에 있는 다른 별들과 함께

해가 있는 쪽으로 쭉 가면서 금방 먼지만 하게 보이더니 태양 속으로 없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의 별들은 태양에 비하여 너무 작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태양보다 더 큰 별이 옆에 나타나더니 태양이 먼지만 하게 되어 그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우주에는 태양보다 그렇게 큰 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옆에 갑자기 아주 큰 별이 나타났다. 그러더니 그 태양보다 더 컸던 별이 그 큰 별 속으로 먼지만 하게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와! 우주에는 저렇게 큰 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큰 별이 점점 작아지더니 수억 개의 많은 별이 모여 있는 은하수 안에 아주 작게 자리 잡는 것이 보였다. 그러니까 그 큰 별도 은하수의 수많은 별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와! 수십억 개의 별이 모여 있는 은하수는 정말 대단한 크기였다. 그곳에 촛촛

하게 모여 있는 별과 별 사이의 거리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렇게 많은 별이 모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은하수가 점점 작아지더니 그런 은하수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은하수가 우주에는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은하수들이 모여 있는 것이 작아지더니 다른 은하수들이 모여 있는 것이 수없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우주는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그런 큰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주에 아니 계산 곳이 없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다. 정말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런 능력 있고 크신 분이 그렇게 작은 지구에 사는 자와 함께하셔서 격려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나는 그날 그 동영상을 보

고 나서 한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왈칵 나오게 되었다. 아, 저런 크신 분이 자신이자 자기의 독생자인 아들을 나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단 말인가? 왜? 왜?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나는 그날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그런 분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나를 생각하며 한동안 눈물을 흘리며 감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윗이 왜 시편 8편 같은 시를 썼는가를 생각해 되었다. 1, 3, 4절 말씀을 보겠다. “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

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다.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고 시간마다 우리를 자기의 영인 성령으로 격려하고 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믿는 자들이여, 이 정도면 어깨를 피고 살 만하지 않는가? 좀 잘 안되어도 그런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힘이 나지 않는가? 그리고 부지런히 그 아버지에게로 달려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좌절한다. 때때로 소망이 그친 사람처럼 절망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인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언제나 그 하나님께 길과 방법을 묻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정기태 목사

(새벽별주일교회)



할렐루야!

본문의 로마서 8:13~14절에 의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3~14)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은 예수의 영이며 보혜사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13절에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역사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한 마디로 예수를 주시라 부르는 자들 바로 저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다(약4:5). 그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본문의 15절에서는 ‘양자’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롬 8:15)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롬 8:16)

본문의 여러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제일 감동적으로 마음에 넘치는 은혜와 닿습니다. 즉,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이것을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성도인 저희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바로 저희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

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된 의무도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빼돌어진 세대로다”(신 32: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자녀이고, 둘째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한 사람의 사망으로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전체를 이어받는 일입니다. 즉, 저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자녀의 것이듯, 하나님의 것이 다 저희의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것을 다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큰 능력이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 저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에 주님과 저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 2:20)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도 영생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저희가 현재 삶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사는 저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처럼 영광을 받기 위해 현재의 고난도 즐거이 받아야 하며, 종국적으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저희에게는 복음으로 인한 현재의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저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상속자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인지를 믿음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장차 천국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기에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더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천국의 영광이 올 것입니다. 저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날이 옵니다. 장차 누릴 영광을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받으니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으나 현재의 고난이 있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저희 모두는 현재의 삶에서 고난과 역경 중에서 법사에 감사하며, 장차 나타날 천국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hungkitae1962@gmail.com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

로마서 8:12-18



수님과 저희 사이에는 친자와 양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저희는 양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은혜와 감격을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에 갖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하나님의 자녀 된 권리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권세는 권력과 세력을 뜻합니다.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력과 세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삶에서 승리하시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빌 2:15)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대 가운데서 거룩한 것이 저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악과 죄가 아닌,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입니다. 저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저희가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됨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 8:17)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고전 3:21)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은 만물입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들이 만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고전 3:22)

만물뿐만 아니라, 주의 사역자들과 세계, 생명과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저희의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때 저희가 하나님의 것을 받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전 3:23)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것을 다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자체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붙들고 누리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 8:17)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는,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 8:17)고 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는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 현재의 고난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중

배운 대로의 믿음

로마 군대 백부장 집에 한 종이 병들어 앓아눕게 되었다. 그의 병 회복을 위해 백부장이 힘쓰고 애쓰고 마침내 주의 도우심으로 낫게 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의문이 생길 만하다. 종은 당시에 '말하는 집승'에 불과한 도구적 존재인데, 어쩌서 성경에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할 만큼 가족처럼 돌보고 최선을 다했을까? 하는 것이다.

백부장의 그런 친절과 사랑

시대와 환경의 조건을 떠나, 우리도 예수를 믿고, 배우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그런 백부장 같은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의 변화는 무엇일까?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의 시금석이 되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열매가 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짙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한

적인 마음은 '내가 거기 가서 산다면, 나 같아도 저 교회가서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가지가 별다른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된다.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열매들이 아닌가? 그저 단순한 기본적인 신앙인으로서 복된 성품의 열매 혹은 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강한 것을 선이라 하고, 무조건 이기고 보라고

래서 아무런 분란의 일도 없이 조용히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셨다고 한다. 자녀들이 있고 생활의 염려들을 생각하면, 본인의 목회적 책임이 없는 일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신 그분의 말씀은 한가지 이유 때문이었다고 한다. 목사가 양들과 싸우며 분쟁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설교의 부분에 있어서 타협해야 하는데, 이 또한 목사의 양심으로 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미국의 대통령 및 각종 정치인들을 투표하는 선거철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선거에 임해야 할까요?
- 오렌지 카운티 Sam Kim

선거철에 즈음하여

A: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느 당의 누구에게 표를 던져야 하는가? 의 선택의 지점에 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후보의 인물이나 인품, 학력, 경력 등도 중요하지만 각 후보의 정책(candidate's Policies)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정책이 성경적이고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장에서 볼 때 올바른 정책인지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서나 역대상 하를 보면 왕정시대에 열왕들의 행적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왕들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이 아니라 상당히 영적입니다. 그 왕의 인품이나 경력보다 그 왕이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인 정책을 행하면 반드시 나라가 흥하고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며 반 성경적인 정책을 펴면 여지없이 그 나라는 쇠퇴해지고 나라가 전쟁으로 죽거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적 역사관(Deteronomistic historical view)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후보에게 표를 던질 때 그 후보의 정책이 성경적으로 옳은가를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7년도 더 된 과거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은 그의 인품이나 다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그에게 표를 던지는데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그는 2번의 이혼, 3번의 결혼, 잦은 성추문 등으로 기독교 윤리와는 상반되는 궤적을 가진 후보였으나 미국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기독교 여론조사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의하면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 수는 없지만, 복음주의의 의견을 가장 잘 대변해줄 후보로 생각한 것입니다. 과거 EU를 장악한 신좌파인 네오 막시즘은 케네디 이후 미국에서 세력을 확대했고 클린턴 오바마 때는 각종 수단과 방법으로 미국의 전통적 기독교 가치가 현저하게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2015년 동성애 합법화 이후로 미국의 기독교 생존을 위해 미복음주의자들이 오바마 클린턴의 신 좌파 노선에 대항하여 이웃 사이터였던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당선되었고 재임기간 중에 기독교 가치를 구현하고 교회를 보호한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미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이 미국은 청교도들이 마태복음 5장 14절의 "인턱위의 도시(City on a Hill), 즉 성경의 바탕 위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좋은 정치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변화되어야 될 때 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변질되는 것이다. 변질되면 악취가 난다. 변화 되면 열매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데, 변질 되면 악취가 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하지를 못하고, 교회의 부흥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된다.

향기나는 열매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불같이 뜨겁다. 분노하고, 파괴하고, 참지 못하고, 사랑 없는 인내와 사랑 없는 평화 속에서 냉소와 미련스러움이 자신과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만들어간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결국, 모두가 무너지고 깨어지며 파괴되는 것으로 결론을 맺을 것이다.

이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하는, 이 악하고 질긴 죄의 흔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다. 더불어, 사랑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온전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매 순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그 접붙임의 잔액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흘러들도록 사모하며 사는 것이다.

다른 길이 없다. 주께 잘 붙어 있으므로, 그 잔액이 우리 속으로 흘러들어 좋은 열매, 향기 나는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따름이다.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불같이 뜨거운 세상, 사랑으로

-분노와 파괴, 사랑 없는 인내, 미련스러움-

은 어디서 왔을까? 타고났을까? 그러나 배경이 맞지않는다. 이방인이고 헬라 문화와 철학적 사상 속에 자랐을 것이고, 더구나 그의 직업이 군인이라고 할 때, 짐승 취급받던 식민지 종을 가족 같은 사랑으로 돌보아준 것을 어찌 타고난 성품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까?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쉽지 않다.

헬라의 철학과 사상은 '용기, 힘, 싸움'이 미덕이다. 공휼, 자비, 사랑은 연약한 자의 자기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한다. 게다가, 군인이면 더욱 혈기왕성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유추할 수 있는 생각은, 사람의 이성과 상식이 이르게 할 수 없는 한 영역이다. 바로 '신앙'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로 그가 '유대 땅에 와서 근무하는 동안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만나 사랑과 자비를 배웠을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만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과 공휼이 풍성하게 넘치는 분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고 할 때, 당연히 그런 처신과 행동이 나타날 것을 짐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 받음의 증거

한마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에, 세상에서 학습되거나 선천적일 수 없는 성품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너무 당연한 이치의 열매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워낙 악하게 변형된 세태를 보고 들으며 학습하다 보면, 이런 지극히 당연한 것도, 의문부호가 따라오는 질문이 되는 것을 본다.

더구나 성품의 변화라는 성령 받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열매조차도 기대하기 힘든 이 시대의 종교생활자들을 보노라면, 과연 기독교의 진리, 말씀의 능력, 성령의 감동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큰 의문부호를 가지게 된다.

참된 사랑의 제자



다. 사랑 없는 오래 참음은 미련한 것이며, 사랑 없는 평화와 온유함은 냉소를 드러낼 따름이며, 사랑 없는 기쁨은 정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적을 보는 위대한 신앙도 있지만, 일상에서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는 신앙만큼 아름답고 복된 것이 없다.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죽기 전에 세가지들 깊이 회회한다고 한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나누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한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안타까워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사랑에 뿌리를 둔 열매들이다.

사랑많은 교회, 부흥

한국에 가서 교회를 방문해보면, 되는 교회와 부흥하는 교회는 뭔가 다른 구석이 있음을 발견한다. 세 가지가 유별나더라는 것이다. 기도 소리, 웃음소리가 크고 밥맛이 좋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차고 넘치는 교회에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열매도 풍성하더라는 것이다. 더 불어 그런 교회들에 대한 결론

유혹한다.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강하고 잘난 사람은 결국 자기 능력만 의지하다가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본다. 반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 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된다.

앞서 서두에 인용한 백부장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그가 진심으로 예수 믿고 변화된 성품을 가진 존재였기에, 그 병든 종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였기에, 그 아픈 종을 통해 예수님도 만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주님 뜻대로 살면, 손해 보고 억울한 것 같아도 주께서 함께하셔서 마침내 승리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

선배 목사님 가운데, 최선을 다해 목회를 감당하던 중에 섬기던 교회의 장로 중의 한 분이 설교에 대해 자꾸만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설교를 바꿀 것을 자꾸 요청하더라는 것이다. 그

것이다.

결국,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떠나왔는데, 이후에 나타난 결과는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쪽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한 것을 본다. 하나님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분을 친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이다.

예수님 만난 흔적

수많은 일의 열매보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흔적들이 더 중요하다. 그 만남의 결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 그 성품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될 때, 주님이 친히 기뻐하시며 마음껏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교회에 처음 이민 목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오셨다고 한다. 처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놀란 것이, 교회에 너무 분쟁이 많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선언하셨다고 한다. 만약 교회에서 싸우고 분쟁이 나면, 그것은 리더인 자신의 탓이기에 사려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결과는 담임목사의 의지와는 달리, 성도들은 그래도 열심히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담임목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선언했을 때, 비록 분쟁의 연약함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교회는 날로 부흥하는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변화와 변질, 그 열매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참된 신앙인,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성품에 온전한 변화를 맞은 사람이다. 변화가 무엇인가?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것이 변화이다. 신앙이 변한다는 것은, 점점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한다.

목회칼럼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보배를 담은 질그릇

공중 그네 타기에서 서로 다른 쪽에서 날아와 몸을 날려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을 다른 쪽 사람이 잡아주는 모습은 갑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은 공중을 날

아가는 곡예사에게 맞추어지지만, 더 중요한 사람은 안전하게 잡아주는 사람(receiver)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능숙해도 생길 수밖에 없는 두 사람 사이의 격차와 오차를 능숙하게

극복하고 붙들 수 있는 쪽은 잡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구르고 힘차게 날아올라도 내 생각과 다른 문제나 어려움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잡아주는 분이 능력자이면 오차와 격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실수와 연약함이 아무리 커도 잡아주는 분이 하나님이면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나 대적보다, 불경기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 있게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가 선지자는 우리 인생을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사 45:9)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이 약한 자, 천한 자가 존귀해질 수 있는 길은 담은 내용물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에 질그릇은 “되는 싸움”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담는 싸움”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금그릇, 은그릇이 되려고 싸우면 안 됩니다. 될 수 없는 일을 하다가 오히려 가만 쓰고 위선을 떠는 치졸함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 천하게 쓰임 받을 질그릇이 자존심만 내세우면, 오히려 별거 아닌 것으로 상처나 잔뜩 입고 힘까지 잃게 됩니다.

질그릇은 오직 담은 내용물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기억하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깨어지는 연약한 질그릇 같을지라도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담으면 존귀한 그릇, 능력 있는 인생이 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총만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 4:7)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당시 세계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할 정도로 화려하고 존귀해 보였습니다. 헌당할 때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였고, 엄청난 수의 백성들도 모였습니다. 또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는 양과 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지성소에 갖다 놓으니까 성전에 가득히 임하였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영광과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인 인생이 금그릇, 은그릇이 되겠다고 ‘나는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고, 내가 누구하고 친하고, 내가 과거에 뭘 했고...’ 그러면 싸우지 말고 중심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은 삶을 사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살롬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출산을 감소에 국제 입양 제한한 중국, '생명 수호' 나선 中 크리스천들

최근 중국이 출산율 감소로 인한 대응으로 국제 입양을 금지한 가운데, 중국 교회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부터 혈연주의 문화로 황실화되지 않은 입양 문화에 나서야 하며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입양 사각지대'의 장애 아동도 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항구도시인 샤먼의 가정교회 목사 부인인 사오펬이 왕은 2014년부터 장애 아동을 돌보는 기독교 비영리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는 단체 직원들이 다운증후군, 수두증(뇌에 체액이 쌓이는 증세) 등을 앓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그때부터 왕과 그녀의 남편은 장애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2020년 자녀가 없던 부부는 다운 증후군을 앓는 소년을 입양한 뒤 아이가 주는 기쁨을 만끽하며 양육하고 있다. 왕 사모는 “중국교회가 장애 아동들을 옹호하는 데 있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입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종종 건강하고 전형적인 아이들만 원한다.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CT는 중국의 국제 입양 역사는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정부의 '1자녀 정책'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사회 분위기에 맞서 많은 양아는 장애가 있는 딸 등을 출산했을 때 아기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 두 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면 벌금과 실직, 강제 낙태 및 불임 수술이 뒤따랐다. 버려진 아이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중국 정부는 1992년 국제 입양을 허용했다. 이후 16만여명의 중국 아동이 입양됐다. 그러나 지난 십 년간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중국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자 중국 정부는 1인 자녀 정책을 종식하며 다자녀 출산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인구 위기에 따른 특단의 대책으로 국제 입양도 중단시켰다.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국내 입양에 여러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이전에는 자녀가 없는 부부만 입양할 수 있었고 그조차도 한 명의 자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입양 부모가 자녀를 돌볼 재정적·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최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두어도 안 된다. 중국 프로라이프단체인 '어린이 생명의 날'을 창립한 조니 판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입양은 부정적으로 여겨져 왔다. 입양에 대한 규제상의 어려움에도 입양에 대한 지속적인 문화적 관념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고 방식이 교회에도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생명의 날' 단체는 2012년 판의 교회에서 사역으로 시작했다. 매년 6월 1일(중국 어린이날)에 현수막을 세우고 전단지들을 나누며 여성들이 아기를 낳도록 권면한다. 위기 임신

의 친구나 가족이 있는 성도들은 이 단체를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단체는 500명 이상의 어머니를 도왔으며 200명 이상의 아기를 낙태 위기로부터 구했다. 비공식적으로 아기를 입양하길 원하는 30개 가정과 상담했다.

미국 무기로 싸우는 이스라엘... 美 군사 지원액 24조원 넘어

지난해 10월 7일 가자전쟁이 시작된 후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한 군사적 지원액이 24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 가자전쟁 이후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 어떤 군사적 지원을 했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브라운대학교의 전쟁비용프로젝트 분석에 따르면, 가자전쟁 이후 1년간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은 179억 달러(약 24조3700억)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에는 무기 판매, 군사 자금 조달, 긴급 지출, 무기 이전 등이 포함돼 있다. WP는 이 추정치가 발표된 후 미국이 이스라엘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했으며 이스라엘 지원액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에 사드를 배치하고 이를 운용하는 미군 병력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는 가장 진보된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 하나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파괴한다. 사드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수천만 달러로 추정되며, 1개 포대에 48개의 미사일 배치된다. WP는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내역 중 상당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레바논 공습에서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스라엘이 지난달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살해했을 때도 미국이 지원한 2000파운드 폭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부 공개된 무기 판매 내역도 있다. 지난해 말 백악관은 이스라엘에 1억6550만 달러 상당의 탱크 탄약 카트리지와 장비 약 1만4000개를 판매하고, 1억4750만 달러 상당의 155mm 포탄 및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WP는 지난 3월에 미국이 지난해 10월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100종 이상의 무기 판매를 조용히 승인했으며, 여기에는 수천 개의 정밀 유도 군수품, 소구경 폭탄, 병거버스터, 소형 무기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거나 인도주의적 지원의 이동을 차단한 외국 세력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스라엘 공습에 의한 가자지구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서방의 군사 지원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영국,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등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수출 무기들이 전쟁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해리스·트럼프,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 나란히 출격

미국 민주·공화 양당 대선 후보가 14일 경합주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19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에 나란히 출격했다.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이후 10번째 방문이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주에 이어 또다시 이곳을 방문했다. 최대 승부처에서 양당 후보 모두 막판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 이리카운티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대선 당일 급진 좌파의 소요가 있을 경우 주 방위군이나 군을 동원해야 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그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거나 자기의 뜻에 굽히지 않는 사람을 국가의 적으로 여긴다”고 비판했다. 해리스는 “그들(반트럼프 인사들)을 추적하기 위해 군을 동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가 누구를 표적으로 삼는지 알고 있다”며 “그가 싫어하는 기사를 쓴 언론인, 그를 위해 추가 표를 찾아 부정행위를 거부하는 선거 관리인, 그의 뜻에 굽히지 않고 법을 따르겠다고 고집하는 판사 등”이라고 했다. 해리스는 그러면서 “이것이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미국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해리스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있다”며 “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위해 출

앞서 트럼프는 전날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선 당일 상황이 어떤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더 큰 문제는 외부에서 들어와 우리나라를 파괴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매우 쉽게 처리될 것지만 필요하면 주방위군, 또는 정말로 필요하면 군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교외의 오크스에서 개최한 타운홀 미팅(유권자들과 대화)에서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트럼프 지지자가 실신하는 응급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행사장에서는 트럼프의 요청으로 '아베 마리아' 'YMCA' 등 여러 곡이 연주됐고 트럼프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기도 했다.

스페이스X '스타십' 5차 시험발사...추진체 회수 첫 성공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십이 13일(현지시간) 다섯 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위해 발사돼 순항하고 있다.



스타십은 이날 오전 7시25분(현지시간)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시'에서 발사됐다. 발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발사 약 3분 만에 전체 2단 발사체의 아랫부분인 슈퍼헤비 추진체가 상단 우주선에서 분리됐다.

슈퍼헤비 추진체는 발사 7분 만에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와 수직 착륙했다. 이번 착륙에는 발사탑의 '젓가락 팔'이 사용됐다.

영화 속 괴물 고질라에서 이름을 따 메카질라로도 불리는 대형 로봇팔은 역추진하며 하강하는 대형 로켓을 공중에서 붙잡아 무사히 발사대에 거처했다. 이 기술은 이번에 처음 시도돼 곧바로 성공했다.

스타십의 2단부인 우주선은 시속 2만6234km 안팎으로 고도 210km 정도에서 예정된 항로를 비행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스타십은 지구로 귀환해 인도양에 착륙하며 약 75분간 여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시험 비행은 지난 6월 6일 네 번째 시험 발사 이후 4개월여 만에 시행됐다. 머스크는 화성을 개척해 인류가 이주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로 스타십을 개발해 왔다. 이 우주선은 미 항공우주국(NASA)이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보내려고 추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3단계 임무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스타십은 길이 50m·직경 9m 규모로 내부에 150t까지 적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역대 최대 로켓인 슈퍼헤비(길이 71m)까지 더하면 발사체 총길이는 121m에 달한다.

야자수가 물에 잠겼다... 사하라 사막 50년 만에 폭우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사하라사막 지대에 50년 만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려 홍수가 났다. 모로코의 사하라사막은 전 세계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모로코 남동부 지역에서는 이틀 동안 연평균 강수량을 웃도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발생했다.



이 홍수로 18명이 사망했고, 9월 내내 이어진 강우로 남동부 지역 댐의 저수량이 기록적인 속도로 불어나기도 했다. 모로코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 라바트에서 남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알제리 국경 인근의 타구나이트 마을에서는 24시간 동안 100mm 이상의 강우량이 관측됐다.

모로코 기상청 관리인 후사인 유아베브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많은 비가 그렇게 짧은 시간과 공간에 집중된 것은 30~50년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상학자들이 온대 폭풍으로 부르는 이런 폭우는 앞으로 몇 달, 몇 년에 걸쳐 이 지역의 기상 조건을 바꿀 수 있다”며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지면서 수분 방출이 늘어나고 더 잦은 악천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하라사막은 전체 면적이 940만km로, 아프리카 북부와 중부, 서부의 12개 나라에 걸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막이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늘어나면서 사하라사막이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반복적인 가뭄을 겪어 왔다. 과학자들은 향후에도 사하라사막에 이번과 유사한 기상상이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셀레스테 사울로 세계기상기구(WMO)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물순환의 변화가 점점 더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난화로 인해 물순환 주기가 빨라졌고, 더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우리는 물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그런 문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21. 김광재 (1875-1962)

김광재는 1875년 6월 5일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28세가 되던 1903년에 하와이 노동 이민선에 올랐다. 그가 하와이 노동 이민선에 오를 때 다른 이름을 사용한 듯하다. 그 후 김광재는 자기 이름을 영문으로 Kwang Chai Kim으로 표기했다.

김광재는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일정 기간 노동을 하였을 것이고, 그가 노동하던 곳에 있던 한인 감리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하와이 국민회 연합중앙회가 성립된 이후 이를 반대하는 자들이 1918년 4월 경에 하와이 총회 임원 선거를 하였다. 그때 김광재는 총무로 선임되었다. 총회장은 안현경, 부회장은 윤계상, 서기와 재무는 이승만, 학무원은 손덕인, 법무원은 양흥렬, 구제원은 정윤필, 군무원은 손창희 그리고 농상부원은 서상호였다.

하와이에 있던 교민단체가 통합하여 한인합성협회를 결성하였고, 한인합성협회가 1907년 10월에 기관지로서 한인합성신보를 창간하였다. 위의 한인합성협회가 1909년 2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공립협회와 연합하여 대한인국민회를 구성하면서 한인합성신보를 개제하여 신한국보를 발행하였다. 1913년 8월에 대한인 국민회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신한국보를 개제하여 국민보를 창간했다. 김광재는 1918년에 국민보의 재정 담당으로 재직하였다.

김광재는 1918년 10월에 제1차 세계대전 징집서류를 제출했다. 위의 징집서류에 따르면 김광재는 키가 크고, 체중이 많았으며, 갈색 눈에 머리카락은 검었다.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그는 자기 어머니 김순0을 적었고, 그의 어머니는 한국 개성 성학동에 거주한다고 기록했다. 그래서 그가 개성 성학동에서 태어났거나 거기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해 12월에 대한인 국민회 하와이 지방 총회 명년도 총회장과 총부회장 후보자에 피선된 자가 알려졌다. 김광재는 손창희와 함께 총부회장 후보였고, 총회장 후보자에 이종관과 윤계상

이었다. 그런데 선거에서 김광재는 부회장이 되지 못했다. 공선된 총회장 이종관과 부총회장 손창희가 대의원회를 거쳐 총회 임원을 조직하였는데 김광재는 총무로 선정되었다. 그 외 서기와 재무 김영우, 학무원 이승만, 법무원 서상홍, 구제원 정윤필, 군무원 손덕인, 농상부원 신성일 그리고 중앙총회 대표원 안현경, 윤계상, 유상기가 임원으로 선임되었다.

2년 뒤인 1920년 12월에 김광재가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총회의 명년도 총부회장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많은 표를 얻었으나 그가 사면하여 총부회장 후보로 김성기와 안원규가 후보자로 선정되었다.

신재로 참상을 당한 내지 동포를 구조하기 위하여 하와이 동포가 1923년 9월에 대대적으로 운동하여 한인기독교회 중앙부, 교민단 총단 그리고 부인 구제회가 연합하여 내지 동포 구조를 위한 취지서를 각 지방에 발송하였다. 이때 김광재가 위의 연합회의 임시 재무로 활동하였다. 그는 400여 달러를 그간에 받아 그달 17일경에 일화로 바꾸어 1,000원을 전보로 동아일보사 구제회로 보냈다. 이와는 별도로 하와이 부인 적십자회와 하와이 한인감리교회는 내지 수재 동포를 위하여 벌써 150달러를 모금하였고, 각 방면으로 크게 선전하여 더 모으려고 하였다.

그해 11월에 금주와 금연을 목적으로 하와이 한인 사회와 종교 단체 대표 10여 명이 발기하여 민단 사무실에서 100여 명 남녀 동포가 모여 한인 교동회를 조직하였다. 김광재는 한인기독교회 대표로 참여하였다. 회장에 안현경, 총무에 박세환, 서기에 이재현이었고, 김광재 외의 단체 대표로는 호랑 교민지방단 조직진, 한인감리교회 현공춘, 부인 구제회 지방회 김해나, 부인 보조회 손마리아, 한인상조회 전이주, 기독교학원 서기근, 청년회 이태성, 신흥학교 객내

홍, 그리고 의사 찬성원 양유찬이었다.

한인교동회 제2회 통상회가 그해 12월에 호놀룰루에서 있었다. 회장이 과거에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호놀룰루 안에 술을 파는 집이 18호며, 술을 만들어 먹는 집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교인 중에도 술이 있는 집이 없지 않았고, 어떤 가정에는 술을 제조하여 팔지는 않고 친구를 청하여 대접한다 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술친구들이 남의 술을 가져 마실 수 없다는 뜻으로 술안주로 육포와 백미와 사탕을 가지고 오는데 실상 일일이 드러내 놓고 안주하는 것보다 더 많다고 하였다.

1923년에 호놀룰루에서 한인들이 한인상조회를 조직하였다. 회원들의 장례를 위하여 한인상조회 회원들이 매달 25센트씩 내고, 한인상조회 회원이 사망하면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해 12월에 한인상조회 이사부장 민찬호 목사의 사회하에 통상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명년도 회장 후보자로 박세환 외에 김광재가 선정되었으나 그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 외 재정 조사 위원으로 전이주, 박세환 그리고 김이제가 피선되었고, 위생국의 허가를 받아 매장지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이 한인상조회는 오늘날 하와이 한인양로원으로 개칭하여 이민 1세대의 복지시설이 되고 있다.

하와이 교민 총단 미국 8년도 총단부가 1926년 1월에 조직되었다. 김광재는 서기와 재무로 선정되었다. 총단장은 최창덕, 부단장은 김성기, 총무는 이은구, 법무는 전경준, 상무는 민능호, 구제원은 김상의, 학무는 양유찬이 선임되었다.

김광재는 1930년에 호놀룰루에서 세 살 많은 부인 김덕은과 하와이에서 태어난 네 살 6개월 된 입양한 딸 하순과 함께 거주하였다. 그해 그는 태평양주보사 매니저로 재직했다. 태평양주보는 이승만에 의해서 1913년 9월에 창간된 월간 태평양잡지가 전신이었고, 1930년 12월부터 대한인 동지회 기관지가 되어 1970년 2월에 폐간되었다.

1930년 7월에 이승만이 대한인 동지회를 미주 한인 사회 독립운동의 중심 단계로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6일간 호놀룰루에서 동지미포대표회를 개최하였다. 중요 의결로서 동지회의 목적을 조국광복에 두었고, 비폭력의 희생적 행동과 조직적 행정과 자치 자금을 동지회의 3대 정강으로 삼았으며, 그 외에도 태평양잡지를 확장하여 영문란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승만을 총재로 추대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9인 중앙 이사부와 행정 집행을 위한 5부로 구성하였다. 이때 이사장 이흥직, 재무 겸 상무원 김원용, 그리고 이사원으로 김광재를 비롯해 김현구, 김경준, 손덕인, 차신호, 박상하, 김윤배가 선임되었다.

그런데 신한민보는 1931년 1월에 '동지회에서 교민단 총단관을 점령한 후 하와이 호랑의 인심은 자못 흉흉하여'라는 제하로 동지회와 교민단 사이에 일어난 분쟁의 심각성에 관한 기사를

냈다. 끝내 이 다툼은 재판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그해 삼일절을 맞아 동지회와 교민단은 각각 삼일절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동지회는 3월 1일 오전 10시에 호놀룰루 알나 극장에서 800명이 모였는데 김광재가 사회를 맡아 삼일절 기념식을 열었다. 이승만 박사가 시국에 관하여 연설하였고, 김유실 부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으며, 김윤배와 이상호가 연설하였고, 그들의 부인과 구제회원과 신흥국어학교 학생이 각각 창가를 불렀다. 이와는 달리 그날 오후 1시에는 700명이 모여 교민단 주최로 와이키키 공원에서 삼일절 행사를 했다. 유명옥의 사회로 천도교 총리원을 호놀룰루에 세운 승용환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고, 미국 감리교 학생들이 창가를 불렀으며, 흥한식 목사가 연설하였다.

그런데 와하와에서도 삼일절 기념행사가 있었다. 와하와와 지방에서는 호놀룰루와는 다르게 감리교회와 김광재가 소속한 기독교회가 연합하여 기독교회 예배당에서 공동회 회장 오 운의 사회로 삼일절 행사를 개최되었다. 강영각이 영어로 취지를 설명하였고, 안창호 목사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으며, 박동환 목사와 안창호 목사가 연설하였고, 최창덕 목사가 기도하였으며, 두 교회 여학생이 함께 창가를 불렀다.

만주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의 충돌은 오래된 일이었다. 1931년 7월에 중국 지린성 창춘현 완바오산 산상바오에 있는 만보산 지역에서 중국인 농민과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 사이에서 수로 문제가 발단되어 만보산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그해 11월에 동지회 중앙부 이사회는 선전 사무 집행위원으로 김광재 외에 안현경과 이원순과 양유찬을 선정하였다. 그들이 그달 18일 오후 2시에 와이키키 공원에서 공동회를 소집하였다. 305명이 모인 가운데 김광재의 사회로 김이제 목사가 기도한 후 송필만이 '왜놈의 만몽 정책'이란 제목으로 연설하였고, 박상하가 '왜놈의 400년 대륙 정책'이라는 제하로 연설하였으며, 총재 이승만이 종일 관계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는 국제 연맹이나 영국과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높이 주장하였다. 이 만보산 사건에 관한 진행 방법과 선전 사무와 그 외에 재정까지 집행위원 네 명이 맡았다. 유희 사태로 이어진 만보산 사건은 918사변으로도 불리는 만주 사변을 촉발하였고, 일제는 만주를 병합기지로 만들고 이듬해 만주국을 수립했다.

100달러를 내걸고 현상 논문 모집이 1934년 2월에 있었다. 논문 제목은 '전운이 임박하여지는 동양의 시국을 당면하여 재미, 포, 목, 규 한인 통일의 필요와 그 방책을 논함'이었다. 5천 자 이상 국한문 또는 순 국문으로 쓸 수 있었고, 제목 발표 후 4개월간 모집하였다. 1등과 2등과 3등은 각각 한 명이었고, 4등은 5명이었다. 상금은 1등 35달러, 2등

25달러, 3등 15달러 그리고 4등 5달러였다. 심사위원이 5명이었는데 태평양주보사의 김광재 외에도 신한민보사 백일규, 국민보사 김현구, 미시간대학 김광운 등이었다. 문체와 조리를 보되 언론이 실제와 이론에 합하여 실행할 가능성이 있어야 했다. 광고 기사에는 '현상자가 누구신고? 아시지 못해서 궁금하실 분이 있을 듯합니다. 그이는 숨어있는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어떠한든지 논문만 잘 지으시오'라고 쓰기를 부추겼다.

1940년에 김광재는 한인기독교회 이사원이었다. 그는 선교부 서기로 재직했고, 선교부 재무는 이원순이었다.

한인기독교회보는 오랫동안 중단되었다가 그해 7월에 복간되었고, 김광재는 한인기독교회보 발행인으로 재직했다. 그리고 장 봉 목사가 주필 겸 편집인이었다. 총 27쪽이었는데 표지 1쪽, 목차 1쪽, 본문 24쪽, 사교 1쪽 등으로 나뉘었다. 한인기독교회보는 월간으로 구독료가 1권에 10전(센트)이었고, 6개월 선금이 55센트였으며, 1년 선금은 1원(달러)이었다. 본사에 관한 일월 통신은 선교부 서기 김광재가 맡았고, 교부 대금은 선교부 재무 이원순에게로 하였다. 태평양주보사에서 인쇄하였고, 발행소는 호놀룰루 릴리하 스트리트 1832번지에 있는 한인기독교 교보사였다. 위의 주소는 하와이 한인기독교회가 위치한 곳이었다.

그해 8월 20일에 발간한 한인기독교회보에 '특별사교'라는 제하에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가 적혀있었다. 1. 본 교보를 발간한 후에 구랍하실 만한 형매(형제자매)께 허락 없이 먼저 보냈습니다. 2. 만일에 교보를 구랍하실 마음이 없으면 1센트 우표를 붙여 도로 보내주시오. 3. 구랍하기 원하시는 형매께서는 교보 대금을 곧 보내주시면 승낙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4. 또 누구시든지 구랍하시기를 원하시면 기별하여 주시옵소서. 5. 7월호는 다 팔려서 절호가 되므로 청구하셔도 못 보내겠습니다.

그달에 발간한 한인기독교회보 대금 영수란에는 아래의 구랍 지역과 구랍자가 적혀있다. 가파호 지역에 양의성 55센트, 박종업 55센트, 호랑 지역에 최성대 1달러, 차신호 1달러, 박복광 1달러, 민찬호 1달러, 염득순 1달러, 이계선 1달러, 장왕형 60센트, 마위 지역 김완신 1달러. 위에서 지정한 대로 6개월 선대금은 55센트였고, 1년 선대금은 1달러였다. 주필 겸 편집인이었던 장 봉 목사가 교인 100명이 10부씩 구매해서 1천부를 판매하자고 하였는데 거기에 거의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1940년 7월호와 8월호가 간행되었을 뿐 이후에는 간행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김광재는 1962년 9월 5일에 향년 87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누아누 기념 공원에 안장되어 있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담임목사: 허진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8:00 금요기도: 오전 09:00 세례기도회: 오전 05:45 Tel.(718)357-9199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담임목사: 이원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세례기도: 오전 05:30 성경찬양: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94, www.kf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 Tel.(516)520-2004, www.gcnyc.org 2408 58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권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월-금) / 6:00(토) Tel.(516)387-9940, 9942(EM), www.cpcd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후 12:00 청년부 예배: 오후 12:00 청년예배: 오전 10:00 수요 저녁예배: 오후 8:00 Tel.(718)706-0100, www.ny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뉴욕효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주일1부예배: 오전 7:15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후 1:30 세례기도: 오전 5:55(월-토) Tel.(718)762-2525, 5756, www.hyoosin.org 42-15 168th St, Queens,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성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창당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례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수, 주, 3주) Tel.(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양예배(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세 배 배: 오전 5:45 전교인통발사역예배: 매주요일 오전 5:30 Tel.(718)229-26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3:40분 세례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분 Tel.(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917)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세례기도회: (월-토) 오전 6:00 Tel.(845) 359-1458, http://omnur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Tel.(718)886-4040, www.kapcc.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선로...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아르헨티나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부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진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요찬양예배: 오후 2:00(영아)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8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N 1R7	하와이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6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아)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진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52)33-3507-4111, hanimkr@hotmail.net Goj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주님 손에 들린 붓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네 개의 파벌이 있었다.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파이다. 그리고, 이 네 개의 파벌은 서로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그토록 파벌을 나누지 말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왜 파벌이 있었을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나를 과시하기 위함이고, 둘째,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 내가 더 대단함을 과시하고 싶고, 내가 리더와 더 친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고, 내 위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파벌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렇게 파벌이 나뉘므로 인하여 내 이름이 높아지든지, 내게 무슨 경제적인 이익이 있든지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위해

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파벌이 나뉘어 있었다.

이렇게 파벌이 나뉜 교회를 향하여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나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는 사역자, 곧 종이 나 노예라는 뜻이다. 노예는 주인의 뜻대로 한다. 주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다.

한 아이가 미술관에 다녀와서 너무나 멋진 그림들을 많이 보고와서 놀랐던 모양이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다. “엄마, 아빠, 피카소의 그림들이 정말 멋졌어요! 그런데 피카소가 찼던 붓은 어디에 있나

요? 그 붓은 정말 대단한 도구인 것 같아요! 그 붓이 있으면 나도 피카소처럼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부모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들아, 피카소의 그림이 훌륭한 것은 그 붓 때문이 아니라 피카소라는 훌륭한 화가 때문이야. 붓은 그저 피카소의 손에서 사용된 도구에 불과한 거야.”

만약, 피카소의 손에 들린 붓이 피카소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생각해보라. 피카소는 부드럽게 붓을 움직였는데 거친 붓질이 되고, 피카소는 거칠게 붓을 움직였는데 부드러운 붓질이 되었다면 피카소가 대단한 그림을 그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붓은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상관없이, 그것이 얼마짜리나와 상관 없이, 화가 마음대로 움직여져야 좋은 붓이다. 붓은 그 붓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붓을 사용한 화가가 드러나야 진짜 좋은 붓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린 붓과 같다. 그러니, 화가 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붓이 자기 주장을 한다면, 좋은 붓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좋은 붓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붓임을 깨닫는다면, 고린도 교회에 파벌은 없지 않았을까? 섬기는 모든 교회에 오직 그리스도와 만이 있기를 기도한다.

wmclakim@gmail.com



코너스톤교회 'MZ세대와 자녀교육'주제 집회에서 주성철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코너스톤교회 ‘MZ세대와 자녀교육’ 주제 집회 열어

“크리스천학교 진학이나, 홈스쿨링을 통해 정체성 지켜가게 해야”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는 ‘MZ세대와 자녀교육(신 5:7-9)’이라는 주제로 집회가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이종용 목사 사회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주성철 목사(대평양법률협회)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다. 주성철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대한 교육은 잘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각 주의 법과 연방법에 의거하여 자녀들을 어떻게 성경적인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말했으며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상황 속에 살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성철 목사는 “현대 문명은 기독교의 가치관을 불편하게 여긴다. 상아탑에서는 성소수자와 패미니즘, 종교 다원주의 및 인권 등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지만 성경의 기준을 가부장적인 사상이며 전근대적인 것으로 폄하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전에는 자신들을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커밍아웃이 화제거리가 되었지만 요즘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버렸다. 그리고 미성년자 학생들이 부모의 허락 없이 성전환수술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ESL프로그램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들면 ESL은 미국대학교에서 유학생들이 영어로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없게 하고 미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인데 그곳에서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성별용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평양법률협회는 27년전에 설립이 되었다. 저희 협회의 사역에 있어서 현재까지 4000여회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히며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헌법의 권위를 완전히 인정하는 가운데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홈스쿨링이 이 시대에 해야 하는 교육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주 목사는 “공립학

교와 공립학교 교사들이 하고 있는 교육이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체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특별히 가정환경조사에서 종교가 기독교인 학생들에게는 LGBTQ 사상을 주입하려는 교육을 더 많이 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들을 크리스천학교에 진학을 시키거나 홈스쿨링을 통해 정체성을 지켜나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목사는 “크리스천하이스쿨의 경우 사립학교라 학비가 비싸다는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으려고 하는 교육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나 명문대로 알려진 대학진학보다 크리스천대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이 좋다. 크리스천대학교가 아이비리그대학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다. 크리스천대학교의 특성은 어느 학교에 진학을 하더라도 성경과 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바이올라의 경우 30학점 이상 성경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어느 학교를 나온 것보다 실력이 우선시 되는 환경이라 굳이 아이비리그를 나오지 않아도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주 목사는 “코너스톤교회가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교회로 알고있다. 그러려면 이곳에서 홈스쿨을 해보는 것도 좋다. 홈스쿨은 한국의 대안학교처럼 문제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공립학교 교육을 하는 곳도 아니며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주기도문으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GIFT for Community 제4차 살렘 전인적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GIFT for Community 제4차 살렘 전인적 리더십 프로그램

“사역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품게 한 은혜의 시간”

GIFT for Community (비영리 단체, 대표 DRS Joseph/의사 & Lydia Chun/공인 심리학 박사)에서 주최한 제4차 “살렘” 전인적 리더십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약 50명의 목회자와 목회자 사모, 그리고 20여명의 봉사자 등, 총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살렘 세미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하기”라는 소제목으로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목회자/사모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내면 탐색과 치유와 변화로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는 성숙을 이룬다는 목적을 가지고 GIFT for Community (501 C, 비영리단체)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제4차 살렘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 깊은 회복과 치유의 경험을 나누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나는 강의와 깊이 있는 나눔은 참석자들에게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상처를 풀어내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참석자들은 “강의와 나눔의 과정을 통해



(사)글로벌 에듀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아프리카 4개국(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교육과 구호사업을 전개했다

(사)글로벌에듀 아프리카 4개국 교육사업과 구호사업 전개

“성령의 등불이 창대하게 아프리카 전역에 퍼져 나가야”

(사)글로벌 에듀(상임이사 이형규 장로)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사)글로벌 에듀 린치핀(Linchpin) 선교사역”으로 아프리카 4개국(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민주

공화국)에서 교육과 구호사업을 전개했다. △교육사업으로는 6개동 30개 교실 건립과 교육 기자재 지원 및 조리시설 개선, 그리고 대한민국 대학교로의 유학생 5명에 대한 4년간 1

사우스베이 목사회 10월 정기 예배

사우스베이 목사회(회장 김우준 목사)는 지난 10월9일(화) 오전8시 코너스톤교회에서 김우준 목사의 사회로 10월 정기에배를 드렸다. 신대섭 목사(가디나장로교회)의 기도 후에 설교에 나선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는 예배소서 5장16절-17절을 본문으로 “주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설교 했다. 이 목사는 “27세의 젊은 나이에 나를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고 있다”고 말하고 정

삼급 가수에서 성가대 지휘자를 거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적으로 전했다. 이 목사는 “이제 남은 생애 내가 원하는 목회자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에 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가한 목회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하여,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지역 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이종용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미주복음방송

2024 GBC 공개헌금의 날 41만 8천여 불 모여

GBC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의 방송사역 후원을 위한 <2024 공개헌금의 날, 아름다운 동행>이 지난 10월 4일(금)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특별생방송으로 진행됐고,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그 이름처럼 많은 이들의 동행이 모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모금된 헌금은 목표했던 40만불을 넘어 총 \$418,032.13(10월5일 기준)로 집계되었다. 팬데믹 이후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이민성도와 교회 모두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만큼 공개헌금 목표액이 채워지는 것에 대한 적잖은 우려가 있었지만, 그 우려가 무색할 만큼 사방각지에서 찾아온 후원자들은 12개의 부스를 직접 방문해 헌금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후원하는 등 기대 이상의 적극적인 후원이 이어졌다. 이영선 사장은 “공개헌금의 날을 진행할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게 되고, 이민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에 늘 감격하게 된다. 먼

명당 연간 700만 원 장학금 지원을 했다. △구호사업으로는 고아원 2곳 설립과 원생들 후생복지를 위한 기부 및 우물정 4개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또한 10월에 15일간의 일정으로 이형규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26명이 아프리카 4개국(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6개동 30개 교실 건립(초등학교 3곳, 중등학교 1곳, 고등학교 2곳과 교육 기자재 지원 및 조리시설 개선 그리고 대한민국 대학교로의 유학생 5명에 대한 4년간 1명당 연간 700만 원 장학금 지원)의 교육사업과 “고아원 2곳 설립과 원생들 후생복지를 위한 기부 및 우물정 4개 프로젝트 완료”의 구호사업을 전개했다. 소강석 이사장(새에덴교회 담임목사)은 “(사)글로벌에듀의 린치핀(Linchpin) 선교사역이 불쏘시개가 되어 성령의 등불이 르완다와 탄자니아 및 우간다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을 시작으로 창대하게 아프리카 전역에 퍼져 나가야 합니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이형규 상임이사(쿠팡출판사 대표)는 “교육은 발전을 위한 발효제(Elimu ni chachu ya maendeleo)라는 아프리카인들의 소망을 위하여 (사)글로벌에듀의 선교사역은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김진표 전 국회의장께서 (사)글로벌에듀의 명예이사장으로 합류하심에 따라 (사)글로벌에듀의 선교사역은 코이카와 협력사업 진행 등 외연을 확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라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기사제공: (사)글로벌에듀〉

동부교계 게시판

온누리장로교회, 34주년 감사예배

온누리장로교회(담임 조문희 목사)는 10월 20일(주일) 교회 탄생 34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 문의: 845-359-1458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청소년지도부 세미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권혁천 목사) 청소년지도부는 10월 26일(토) 오후 7시30분 주안예교회(담임 임영건 목사)와 줌(Zoom)에서 '넷 같이 숨어 다가오는 미래'의 주제 아래 고신남 목사를 초청하여 이슬람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 문의: 631-327-8046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 제7회 정기공연 “룻기”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단장 윤 다이아나 권사)은 10월 27일(주일) 오후 6시 뉴욕신광교회(강주호 목사 시무)에서 '룻기'를 주제로 한 제 7회 정기공연을 개최한다.
▲ 문의: 718-357-3355, 1010

퀸즈장로교회, Fall Family Festival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10월 31일(목) 오후 5시30분 퀸즈장로교회에서 Fall Family Festival을 개최한다.
▲ 문의: 718-886-4040

벤엘교회, 할렐루야 밤

벤엘교회(담임 백신종 목사)는 10월 31일(목)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나팔절'이라는 주제로 할렐루야 밤을 개최한다. 대상은 9/2/22생부터 5학년 어린이며 등록은 10월 20일(주일)까지 <https://forms.gle/cjbKRJXxecN2ARzz9> 로 등록하면 된다.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 문의: 410-461-1235

베다니장로교회, 홀리윈 나잇

베다니장로교회(담임 김영진 목사)는 10월 31일(목) 오후 5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베다니장로교회와 주차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다채로운 게임과 캔디와 선물까지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홀리윈 나잇을 개최한다. 1201 Quince Orchard Blvd, Gaithersburg, MD 20878
▲ 문의: 301-670-1200

퀸즈한인교회, “나의 목회 철학” 세미나

12명의 목회자들 한자리에

복음과 연합이 주관하고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가 주최하는 “나의 목회 철학” 세미나가 오는 10월 22일(화) 오전 9시 - 오후 3시에 퀸즈한인교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북미 교계에서 주목받는 12명의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그들의 깊이 있는 통찰과 수십 년간의 목회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의 가장 큰 특징은 각 목회자가 자신의 목회 철학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해 발표한다는 점이다. 주강사 류응렬 목사

등 12명의 강사진이 미주의 다양한 목회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핵심적인 목회 철학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사와 목회철학은 류응렬 목사(주강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한사람, 고현종 목사(디사이플교회) '제자훈련 선교교회', 김바나바 목사(퀸즈한인교회) '주는 교회', 김우준 목사(토렌스조은교회) '모두가 제자되어, 모두를 제자삼는 교회', 박신웅 목사(얼바인온누리교회) 'Acts29', 박형일 목사(토론토밀알교회) '교회같은 가정, 가정같은 교회', 심상현 목사(뉴욕IN2교회) '사도행전속 안디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제35회 정기총회

회장연임 박병섭 목사·부회장 정인수 목사, 김정미 전도사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제35회 정기총회 후 사진촬영 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회장 박병섭 목사) 제35회 정기총회가 10월 14일(월) 오후 6시 산수감산2 연회장에서 열려 예배와 회무 시간을 가졌다.

김지희 목사(부회장)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정인수 목사(증경회장) 기도, 김정미 전도사(서기) 성경봉독, 박병섭 목사(회장)가 설교했다. 박병섭 목사는 '부르사 보내시며 (막 6:7-13)'이라는 제목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것은 신앙과 사명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격려하며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길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요구한

다. 모세가 지팡이에 의지했듯,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두려움 없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동문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설교 후 김지희 목사의 인도로 아픔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 통성기도 한 후 이원호 목사(증경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박병섭 목사 사회로 시작한 회무는 서기의 회원 점명 후, 의장 박병섭 목사가 개회를 선언하며 진행됐다. 각 부서의 보고를 받은 뒤 총동문회 증경회

육교회', 윤대혁 목사(사랑의빛선교회) '행복한교회 건강한교회', 이돈하 목사(오레곤벤엘교회) '이민자에서 사명자로 변화되는 교회', 이은상 목사(세미한교회) '브릿지 목회', 이혜진 목사(아틀란타벤엘교회) '말씀, 능력, 열매 그리고 다음세대', 하성진 목사(벨뷰사랑의교회) 'Following Jesus' 등이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퀸즈한인교회 김바나바 목사는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강의를 넘어 현대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강사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기회는 참석자들의 목회 여정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등록문의: info@kcqny.org 718-672-1150
(정리: 김재상 기자)



나의 목회 철학 세미나 포스터

언덕 위 하얀 집

〈2면에서 계속〉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 드리는 동네 구역 예배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 구역장인 아버지의 설교와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쥔 계란, 고구마, 감자가 상에 올라와 정겨운 얼굴로 나눠 먹었다.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다 구역 예배에 와서 눈물 흘리고 구웠던 얘기를 하며 꾸역꾸역 쥔 고구마를 성찬식 빵처럼 떼어 나누던 그 공동체에서 약간의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짧게 스쳐가는 그림이 너무 좋아 자주 상상하다 보니 언덕 위의 하얀 집은 나도 모르게 점점 산 위의 동네 교회로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가난의 운명을 피해 숨었던 언덕 위의 하얀 집에서 여전히 서로 신앙으로 의지하며 모여 살아가는 산 위의 동네 교회가 꿈이 되어가고 있었다.

1970-80년대를 지나며 한국 경제가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었지만, 철저히 우리 가족을 비켜갔다.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한 번도 잘된 적이 없어 산동네를 옮겨 다니며 살아가야 했다. 가난한 소년에게 그 어떤 꿈도 다 사치가 되어 버리자 나는 점차 반항적이고 거친 청년으로 변모해 갔다. 내 구차한 삶이 부끄러

워 다른 나로 위장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신학을 하는 것이었다. 신학을 하면 좀 나아질 거라 믿었지 만 그저 녹는 차에 기름칠하기에 불과했다.

그 상태로 목회자가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가난했던 시절의 어느 날 "주님, 저는 차라리 평생 집을 사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뱉어 버리고 말았다. 신학적 외피로 가슴 속 상처를 가린 채 냉소적 논쟁을 하며 폭발시키던 젊은 목사의 갑작스런 서원이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가 부의 불평등 문제였다. 그때 지대의 상승으로 불로소득을 얻어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빈부 격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고 이런 현실에서 나는 차라리 집을 사지 않겠다고 떨쳐서원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때 나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읽고 토지의 사유화가 빈부 격차를 증가시킨다고 믿고 설익은 정의감을 폭발시키고 있었다.

그 시절 나는 목회하는 친구들과 "자본주의 체제에서 교회가 제대로 존재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종종 논쟁을 벌였다. 시비를 거는 사람은 항상 나였다. 나는 교회와 자본주의가 공통으로 포함하는 원소들을 눈 씻고 찾아보려야 볼 수 없어서 나는

장단의 새로운 임원으로 회장 김지희 목사, 부회장 정기태 목사, 서기 이종태 목사가 선출되었으며, 총동문회 회장으로는 박병섭 목사 연임, 부회장은 정인수 목사, 김정미 전도사를 선출했다.

Th.M 졸업생들의 총동문회 회원 자격에 대한 새로운 안건

논의는 다음 회기로 이관하고, 임원들이 회원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증경회장단에 제출한 후 다음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전은호 목사(부서기)의 광고와 박병섭 목사(회장)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1.5세와 2세 간증 세미나 후 사진 촬영 했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1.5세와 2세 간증 세미나

세대 간 연결을 통한 이민 교회의 부흥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조상숙 목사)는 10월 10일(목) 오전 10시30분 뉴욕만나교회(정상철 목사 시무)에서 황영송 목사와 정진원 강도사를 초청하여 1.5세와 2세 간증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상숙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세미나는 기도 성숙자 목사(부회장) 봉헌기도 박수자 목사(회계) 봉헌송 김영환 목사, 특수 김보라 목사, 폐회기도 정금선 목사(서기) 순으로 진행됐다.

황영송 목사(Rev. Steve Hwang)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태어난 모세는 신앙있는 부모 덕분에 준비된 자로 세워졌다. 부모의 기도와 믿음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 자녀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민 교회의 내일을 위해 1세대들이 2세를 세우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세대 간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교회를 이어갈 것이다. 코로나 이후 영어권 예배의 침체 속에서 손자 손녀를 통해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3세대들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민 교회가 세대 간 연결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복된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정진원 강도사(Daniel Chung)는 "중고등부 수련회 후 학생들이 세상적 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그 이유를 "뜨거운 열정이 말씀보다 찬양과 기도,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기억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태복음 22장 37-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본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나누었다. 정강도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배너를 만들고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따라 기타와 성경책, 최소한의 옷만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동경에서 오키나와까지 교회를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고 노방 전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에서 말씀으로만 말하는 조수아라는 아이를 만나 말씀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으며, 21일 금식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자신의 죄로 깨달았다. 그는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학교에 진학하였고, 히브리어 4장 12절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다음 세대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현숙 기자)



전도를 위한 이웃 초청 건강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최현규 한의원장)

센터빌한인장로교회, 전도를 위한 이웃 초청 건강세미나

‘성도의 진정한 복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센터빌한인장로교회(담임 차용호 목사)는 10월 6일(주일) 오후 1시 본교회에서 최현규 한의원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전도를 위한 이웃 초청 건강세미나'를 개최했다.

차용호 목사는 최현규 원장이 한의사로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현규 원장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진정한 복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이라며, 병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에서 행복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시련도 겪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도와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사람은 치료의 도구일 뿐이며 진정한 치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후 일주일 내 통증이 있는 참석자들에게 침 치료를 제공하여 영적 도전과 함께 육체적 회복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영상취재 홍현숙 기자)

한 보호하심 아래 누리는 위로이고 핍박받고 소외된 자들이 그의 통치로 이루어진 평화이다. 그 통치가 기둥이 되고 살림이 벽돌이 되어 나와 이웃의 삶에 임하는 그 나라가 내게는 이제 언덕 위의 집이 되었다.

지금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제 나와 씨름하기보다는 벌레와 동물을 대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와 섭리가 임하는 창조 세계를 보고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게 임하는 섬세한 손길을 내 피부로 느끼며 산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려고 애쓰니 창조주에게 호소하는 자연의 언어가 문득 환상같이 스쳐 가며 내 연필 끝에서 흘러나간다. 그리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로 순응하면 죽어가던 우리의 삶도 자연도 회복이 될 것을 믿는다.

나는 아직도 산 위의 동네를 찾아다닌다. 멀리서 바라보면 정겹고 따뜻하게 나에게 다가와 안겨 오는 그 풍경이 너무 좋다. 예전에는 다가가면 멀어지더니 지금은 쑥 들어와 스며들어 버린다. 슬췌던 동화가 행복한 드라마로 끝나는 내 삶의 파노라마는 주가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종말론으로 끝이 난다.

by 필립 정, TGC



제9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페스티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제9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페스티벌 열려

영예의 설교 대상 월드미션대학교

제9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페스티벌이 12일(토) 오전 9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영예의 대상은 월드미션대학교가 차지했다. 미주성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주최하고 캘리포니아프레스티지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가 주관하여 열린 설교페스티벌 1부 개회 예배는 강정자 총장(캘리포니아프레스티지대학교)의 사회와 황진기 교수(에반젤리아 대학교)의 기도, 최규남 총장(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격려사 후에 송정명 목사(성서화운동본부 공동 대표)가 성찬 예식을 집례 했으며 이상명 총장이 축도했다. 박인호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사회로 시작된 2부 설교페스티벌은 심사위원장 김은철 교수(캘리포니아프레스티지대학교)의 심사기준 발표와 각 학교에서 출전한 설

교자들의 설교, 김보름 전도사 특송이 있었다. 이어 김재권 장로(미주성서화운동본부 이사장) 진행으로 열린 심사평가 및 장학생 발표는 김은철 교수가 심사평을 했으며 시상 및 장학금 수여가 있었다. 이날 행사는 고종필 교수(캘리포니아프레스티지대학교)의 마침 기도로 막을 내렸다. 다음은 시상 내역이다. △설교대상: 월드미션대학교, △주제호소력대상: 류명순 전도사(월드미션대학교), △설교구성력대상: 소엽 전도사(그레이스미션대학교), △설교시각화대상: 전소연 전도사(캘리포니아프레스티지대학교), △메시지성육화대상: 이민숙 전도사(미성대학교), △적응실천성대상: 김정열 전도사(국제개혁대학교), △다문화최근성대상: 김하늘 전도사(에반젤리아대학교)

〈박준호 기자〉



2024 연세 의료·건강 무료 박람회 가 은혜한인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2024 연세 의료·건강 무료 박람회 성황

550여명 참석해 각종 검사 및 상담 받아

연세대 남가주동문화(회장 수잔 정 박사)가 LA와 OC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2024 연세 의료·건강 무료 박람회’를 12일(토) 오전 9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치매예방, 우울증, 불안증 검사, 혈당, 혈압 검사, 체지방 검사, 경동맥 초음파 검사, 유방암 검사, 유로 피 검사(20달러), 독감 예방접종, 사회복지·B형 간염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당초 예상보다 많은 6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수잔정 박사는 “많은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서 감사하다. 코로나팬데믹 때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과 불안증이

20%이상 높았고 자살이 많아졌다. 그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여러 가지로 불안해하고 있다. 그리고 한인들은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를 밝히는 것에 대해 수치감을 가지고 있어서 꺼려한다. 그래서 무슨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망막해한다”며 “이번 박람회가 그분들에게 각종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별히 한인들은 자살에 대해 생각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 한인들이 아시아인들 중에 가장 많이 자살을 하고 있다. 정신이 건강하려면 육체가 건강해야 한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참석한 모든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OC한인교회 2024 가을말씀부흥회에서 노진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세미나를 마치고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

미주기독한의사협회 24주년 비전연합예배

“한방의료, 21세기 의료선교의 새로운 지평 열 것”

미주기독한의사협회(회장 정종오) 24주년 선교비전연합예배가 13일(주일) 오후 4시 조이플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손영규 목사(Global Asian Medicine Association 이하/GAMA 대표)를 주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라파 찬양단의 찬양과 김풍관 선교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정종오 회장 개회인사, 이육선 이사 기도, 손영규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손영규 목사는 ‘한의의료 선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느헤미야 2:11-18)의 제목으로 느헤미야서의 배경과 시기를 설명한 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묻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비전을 따라 고국으로 돌아가 그 비전에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만나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 나누며 함께 일어나 건축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기 원한다”고 말하며 “계획에도 없었으나 33년 전 양의학 전문의가 미국으로 와서 한의를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알 것 같다. 한의는 21세기의 어려운 선교 현장에서 의료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하며 세계를 향한 한의의료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었다. 이어 김영택 목사 사회로 진행된 선교비전 나눔의 시간을 통해 강평근 목사(부활교회 담임) 축사, 김정호 목사(조이플교회 담임) 권면이 있는 후 정창섭 장로(Peace Clinic 대표), 김성일 목사(홀리의료교육선교회 대표), 황규인 선교사(터키), 손영규 목사가 각각 선교의 비전을 나누었다. 미주기독한의사협회는 2000년 12월 10명의 크리스천한의사로 구성돼(초대회장 김성일 목사) 2001년부터 매월 예배를 드려오고 있으며 국내를 넘어 필리핀, 아프리카 등 세계를 향해 한방의료선교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손영규 목사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2001년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미국에서 한의학을 공부했다. GMS 선교사로 2001년 동아시아에 파송돼 사역했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에서 GMS 선교사 의료 멤버케어를 총괄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경주 새교회 리더 목사, 소망이비인후과병원 원장, GAMA 대표로 활동하며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세계 선교를 향한 의료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품고 사역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OC한인교회 2024 가을말씀부흥회

“기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 2024 가을말씀부흥회가 “거룩한 열심을 품으라”는 주제로 6일, 13일, 그리고 20일 예배시간에 개최됐다. 13일(주일) 오전 11시30분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남성수 목사 인도로 시작된 둘째 날 세 번째 집회는 노진준 목사가 ‘구하라(마 7:7-1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노진준 목사는 “구하면 주시리라 찾으면 찾으리라”는 말씀은 분명한 약속이라 믿지만 기도한대로 안될 때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도에 대하여 잘못 이해해서이다. 첫째 하늘에 상달될만한 기도가 아니기에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기도응답이 안되는 이유를 찾게 되고 기도응답이 안 되는 이유에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의 반대말로 의심을 생각한다. 우리가 의심

하기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만약 기도에 대한 의심 때문에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자들의 정신통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둘째 아직 기도의 수가 차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의미 없이 많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비롯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는 기도는 몇 번 해야 하는 것이 아닌 내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듣고 계셨고 지금도 들으신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해서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기도에 심각한 자기중심성이 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는 수단이 아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 구하라고 하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다. 그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를 멈출 수 있나.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가 회복되는 삶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노진준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익스플로74 50주년 기념예배
순무브먼트 글로벌(KCCC나사렛형제들)이 주관하는 익스플로 74 59주년 기념예배가 20일(주일) 오후 4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818)314-6643

코너스톤교회 창립 31주년 감사예배
코너스톤 교회(담임 이종용 목사) 창립 31주년 감사예배는 20일(주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 문의: (310)530-4040

남가주기쁨의교회 설립43주년 감사부흥사경회
남가주기쁨의교회(담임 이황영 목사)는 설립43주년 감사부흥사경회를 18일(금)부터 20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이번성회의 강사는 황성은 목사(창동염광교회)이며 일정은 18일(금) 오후 7시 30분, 19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30분, 20일(주일) 오전 8시, 오전 11시이다. 한편 20일(주일) 오후 3시에는 장로 임직, 원로 추대, 은퇴예배를 갖는다.
▲ 문의: (310)326-03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창립 47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는 창립 47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를 20일(주일) 오전 10시에 갖는다. 이번 임직예배에는 2명의 안수집사와 3명의 시무권사가 임직된다.
▲ 문의: (714)899-9191

미주성결교회 제2회 전국장로회 수련회
미주성결교회(총회장 조승수 목사) 제2회 전국장로회 수련회가 “장로, 사명과 역할”을 주제로 10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토렌스에 있는 산성교회(윤석형 목사)에서 개최된다. 개회설교는 총회장 조승수 목사(더브릿지교회), 강사로 해외선교위원장 안선홍 목사(애틀랜타 섬기는교회), 전 총회장 윤석형 목사(산성교회), 의학박사 임대순 장로(연세메디컬 클리닉원장), 전 총회장 황하균 목사(뉴욕소망교회)이며, 폐회설교는 부총회장 김중호 목사(연합선교교회)가 맡았다.
▲ 문의: (818)634-0490

2024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와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4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가 25일(금)부터 26일(토)까지 개최된다. 일정은 25일(금)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26일(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이다.
▲ 문의: (323)227-1400

새생명비전교회 로마서 강해 목회자 세미나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는 목회자 및 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로마서 강해 목회자 세미나를 21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2시까지 본교회 EM 예배실(4226 Verdant St. LA CA 90039)갖는다. 주제는 ‘로마서 강해 설교의 이론과 실제’이며, 강사는 안선홍 목사(애틀랜타 섬기는교회 담임)이다. 세미나 등록비는 \$20이다.
▲ 문의: (323)535-4590



전 모세 담임목사가 퀴즈대회 참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오렌지힐스한인교회 청소년 팀, 성경퀴즈대회 단체 2등

오렌지 힐스 한인교회(담임 전모세 목사) 청소년 팀이 틴바이블퀴즈(TBQ)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10월 5일(토) 샌디에고에 있는 리빙워터 성경교회(Living Water Bible Church)에서 개최된 제1회 TBQ대회에서 이 교회의 Esther Cho(7th), Isaac Oh(7th), Sarah Cho(6th), Hannah Cho(6th) 등 청소년 그룹이 참가하여 2등을 차지했다. 이번 퀴즈대회는 총 4라운드로 이루어졌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17장까지 암송해야 참여할 수 있는 경연대회였다. 이번 대회에는 Orange, Riverside, San Diego, Victorville, Yorba Linda, Irvine 등지의 JBQ, TBQ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참여한 대회였다. 이 퀴즈대회는 오는 2025년 5월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전 모세 목사는 “저희 교회가 펜데믹을 지

〈정리: 박준호 기자〉



NCKK “남북, 서로 간에 적대행위 중단하라”

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

우리 군이 15일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자 이에 대응사격에 나섰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한기양 목사)가 “남과 북 모두 서로 간에 적대행위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NCKK 화통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의 발단은 남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이었다. 이에 북은 오물풍선으로 답했다”며 “남한은 지난 9월까지만 해도 71차례의 대북전단을 살포했으며, 북은 최근까지 28차례의 오물풍선을 투하했다. 이 도발은 서로를 향한 확성기 방송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NCKK 화통위는 “멈출지 모르는 적대행위와 심리전을 포함한 도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도발은 남과 북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갈등의 발단을 서

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남과 북의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의 씨앗인 대북전단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부터 이번 무인기 전단살포까지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태도와 입장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NCKK 화통위는 “혹여나 우발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오늘날 같은 긴장관계에서는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결국 이 모든 피해와 이후 갈등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전쟁은 공멸이다. 전쟁의 긴장과 공포를 증폭시키는 도발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대해, NCKK 화통위는 “무인기 진상 여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하면서 ‘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며 “무책임으로 일관하기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멈추고,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회 취소하라” “악법 반대에 뜻 모을 것”

200만 연합예배 둘러싼 교계의 ‘동상이몽’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예정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앞두고 교계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200만 연합예배는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을 비롯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 제정 등에 맞서는 한국교회의 연합집회다.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복교연·공동대표 강호숙 구교형 김승무 이문식)은 ‘10·27 정치집회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200만 연합예배는 편향된 정치집회”라며 “이제라도 행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차금법에 종교 자유를 침

해하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찬반을 넘는 폭넓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합의된 법안이 통과 되도록 힘쓰면 된다”며 “아무런 공론과 절차 없이 몇몇 사람과 단체가 멋대로 만든 주장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총괄기하여 차금법을 싸잡아 반대함으로써 왜 교회 스스로 시대착오적인 고립의 길을 자초하느냐”고 비판했다.

기독교민단체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공동대표 정병오 조성돈 조주희)도 200만 연합예배 참여를 결의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에 “광화문 집회를 연기해달라”며 “교단 신학과

헌법에 근거한 논의’와 ‘총회와 교회의 공개 토론’을 요청했다. 기윤실은 “연합 집회를 굳이 주일에 전국 단위로 개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나”며 “교단 총회는 교회의 문제만 다루고 사회의 악법 저지는 개별 기독교인이나 기독교민운동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성경의 사회참여 원리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예배가 악법 저지 집회 동원의 수단이 되는 것이 성경적인가.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순수하게 연합 예배를 드리거나 당당하게 악법 저지 기독교인 집회로 모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200만 연합예배 조직위원회는 예정대로 광화문에 모임 방침이다. 연합예배 실행위원장인 손헌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복교연과 기윤실 측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무슨 권한으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결의한 연합예배를 취소하라고 말하는가”라고 반박했다. 손목사는 “정치 집회라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특정 인사는 초청하지 않았다”며 “이번 연합예배 목적은 한국교회가 함께 회개하고 악법 반대에 뜻을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의 달에 쏟아지는 동성애 미디어

교계가 중심이 돼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야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의 달 10월을 맞이한 가운데 동성애 코드에 담긴 영화가 잇따라 개봉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청소년들을 비롯한 일반 대중에게 무분별하게 유입돼 일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계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15일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동성애자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이 개봉했다. 유명 배우가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오는 21일 드라마로도 방영될 예정이다. 16일에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순 없지만 사랑은 할 수 있겠지’, 23일에는 ‘폭설’이 개봉된다. 이 영화들에도 공통적으로 동성애 코드가 담겨있다.

시대적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계 특성상, 동성애 코드가 소위 ‘장사’가 되기 때문

에 전면에 내건 미디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심만섭 교회인론회 사무총장은 “자극적인 콘텐츠에 끌리는 대중들의 기호와 최근 대법원에서 동성커플 건보료 판결 등을 의식한 미디어에서 문제의 프로그램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에 따른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등 다음세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된다. 감수성이 예민한 이들은 자극적인 미디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백진희 성품성교육 강사는 “우리 뇌에서 충동조절, 감정처리, 동기부여 등의 기능을 처리하는 전두엽은 25세는 돼야 완성되기 전까지 충동억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해당 미디어들이 끼치는 해악은 생각보다 크다”고 지

적했다.

해당 미디어들이 동성애 코드를 내놓고 드러내지 않는 점도 문제다. 이에 문제의 부분들을 의도치 않게 접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영화를 관람한 A씨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아들과 해당 영화를 관람한 뒤 적잖게 당황했다”면서 “포스터 등으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 나왔다”고 토로했다. 동성애 코드가 반복적으로 미디어를 타면서 일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동성혼 합법화 등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일부 미디어의 경우 정부에서 뒷받침까지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는 21일 방영 예정인 드라마 ‘대도시 사랑법’에 국민 세금으로 제작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14일부터 사흘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교계가 중심이 돼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음세대를 비롯한 일반 대중에게 미디어의 행태 및 피해를 적극 알림으로써 교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미숙 퍼스트코리아 대외협력국장은 “이는 교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문화전쟁’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디어를 통한 성오염 실태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단체를 설립해 이를 방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말 잘한다고 칭찬, 당혹스러워요” ...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고정관념 개선해야

“안녕하세요” 인사만 해도 한국말 잘한다고 칭찬받고, 매운 떡볶이와 김치를 잘 먹는다고 놀라는 모습을 자주 봐요.” 아이린(15)양은 카메룬 출신 부모가 한국에 정착한 뒤 태어났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그는 검은 피부색과 땅은 레게머리 뒤에 여느 한국 청소년들과 다름없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지나가는 행인이 내가 한국말을 하면 놀라지만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해명도 안한다”며 “겉모습만 보고 자신을 외국인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같은 나라에서 온 알리(31)씨 역시 7년째 한국에서 생활하며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하면 가난하고 마른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키가 크고 건장한 나를 보고 아프리카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다. 심지어는 ‘사자 타고 왔냐’ ‘코끼리랑 같이 살았냐’는 황당한 질문을 받은 적 있다. 양희성(위대국제선교회) 선교사는 “이런 반응이 바로 ‘착한 차별’이자 ‘불편한 관심’이라며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고정관념이 이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북한 내 종교적 이유로 인권 침해 사건, 10년 간 ‘10배 증가’

북한 인권침해 사건 중 ‘신념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6명 정도가 성경을 믿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당하는 것을 봤습니

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이사장 신영호)가 발간한 ‘2024

북한인권백서’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NKDB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매년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담았다. 4년 만에 발간된 백서는 ‘NKDB 통합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둔 사건 8만7000여 건과 인물 5만6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NKDB는 보고서를 통해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가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사건 중 2020년 이후 10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2010년대까지 전체 인권 침해 사건 중 1% 미만을 차지하던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비율은 2020년대 502건 중 51건(10%)으로 높아졌다. 이 가운데 종교를 가졌다

는 이유로 학대·처벌받은 증언이 다수를 차지했다. 신념 및 표현의 권리에는 종교박해, 이념 주장에 대한 박해 등이 포함된다.

인권 침해 사건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사건은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63%)’에 대한 침해였다. 이는 불법구금, 고문 및 폭행, 강제매춘 및 인신매매 등을 포함한다.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에 대한 침해 중 ‘민족반역죄(45.1%)’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죄명은 ‘종교 생활 및 선교(14.1%)’였다.

NKDB는 종교로 인한 박해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외부 정보 수요 증가와 당국의 통제 강화가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피종진목사**10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i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화) 오후 2(수) 오후 3(목) 저녁 4(금) 낮 5(토) 오후 7(월) 오전 7(월) 저녁 7(월)~8(화) 낮 9(수) 오전 10(목) 오전 11(금) 오전 12(토) 오후 13(주) 오후 14(월) 오후

15(화)~18(금) 20(주) 저녁 21(월) 오전 21(월) 22(화) 오전 23(수) 오전 24(목)오후·후 25(금) 저녁 27(주) 저녁 28(월) 오전 29(화) 오후

WRC 국제적십자 (총재 권세라) / KOREA HOUSE 010-7675-0002
송추 반석교회(고건성 목사) 010-2391-3004
예산 백학수양관(원장 김정애) 010-9350-7004
인천 송도국제도시 빛과소금교회(조광원 목사) 010-8248-7004
한국교회 회복운동(총재 한요한 목사) 010-9578-0049, 정진희 목사
국민일보대담 한국기독교연간제작전(대표 한영호 총장) 010-2009-7272
서울 성령순복음교회(박현선 목사) 010-2042-0591
천안 위대한 안식교회(윤재민 목사) 010-3980-5991
구리 국제신학교(이사장 김영준 목사, 총장 최영 목사)
연세대학교 총동문 부흥협의회 / 연세대 백영누리
한국기독교부흥사단제총연합(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Special Blessing Service
서울 열린교회(최태선 목사) 010-3298-8023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노희창 강문진 목사)
서울 강남 영동제일교회(강석훈 목사) 02)518-5561

15(화)~18(금) 20(주) 저녁 21(월) 오전 21(월) 22(화) 오전 23(수) 오전 24(목)오후·후 25(금) 저녁 27(주) 저녁 28(월) 오전 29(화) 오후

Mission to Trip Asia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KAICAM 목사 안수식 / 할렐루야교회(김승욱 목사)
경신 빛나는교회(정경화 목사) 010-7706-0635
한일산기도원(원장 이영국 목사) 주최 : 노혜미부흥성회(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화성 꿈넘어꿈교회(김현수 목사) 주최 : 월드기독교총연합회 (대표교문 피종진 목사, 이사장 정진희 목사) UN Day 연합성회 010-7567-8291
서울 축복교회(김보배 목사) 010-2971-1497
서울 누가선교회(김정순 목사) 주최 : 한미연합부흥장사단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귀범 목사) 010-2238-3999
대전 주안장로교회(정정순 목사) 010-5255-7777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정기총회(대표회장 박승주 목사) 010-7561-0191 한성교회(이승현 목사)
서울 축복기도원(박영화 목사, 양유식 목사 010-8839-8899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신영로 400(영등포동)

www.nsc.or.kr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65)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제4차 2024 서울-인천 로잔대회와 그 이후(2)

〈지난호에 계속〉

3차 대회는 사회 문제에 대한 선교적 대응 강화에 일익을 감당하였다. 대회에서 논의된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복음적 대응은 이후 각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세계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인신매매 반대 운동, 빈곤 퇴치와 같은 영역에서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선교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제4차 로잔대회(2024년, 서울-인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대회로 개최되었다. 이전 로잔대회들의 흐름을 이어받았고, 특히 젊은 세대와 일터 선교(workplace mission)에 초점을 맞추며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 대회는 200개국에서 다양한 복음주의 교회와 선교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복음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이번 4차 대회의 긍정적인 점은 포용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돋보였다. 젊은 세대와 일터 선교의 중요성 강조가 두드러졌다. 4차 대회에서는 40대 미만의 젊은 세대와 일터 선교(workplace miss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들 그룹이 대회 참가자들의 1/3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는 선교에서 젊은 리더십의 역할을 중시하고, 평신도들이 일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략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대회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통해 복음주의 선교가 세대 간에 더욱

포용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 세계적 참여와 포용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많이 보였다. 이번 대회는 202개국의 대표들이 초청받아 200개국에서 현장에 참여하였다. 로잔 운동의 글로벌 차원이 확장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문화와 인종, 신학적 배경을 가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복음의 다각적 적용과 전파 방법을 논의하였으며, 다양한 복음주의 진영이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특히, 대회 중 각 지역과 인종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다양한 세션이 마련되어, 복음적 일치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이 보였다. 4차 대회는 이전 대회들보다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더 고려하며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각 세션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지역을 대표하는 발언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복음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는 비서구권 교회의 목소리가 강화되고, 서구 중심의 대회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드러난 부분이었다.

디지털 미디어와 선교 전략의 융합을 더욱 노력하였다. 디지털 기술이 이번 대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에서도 역대 가장 큰 LED 화면을 전방에 설치하고 압도적인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선보인 대회였다. 온라인 중계와 디지털 소통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대회에 참

여할 수 있었고, 디지털 선교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회 도중 찬양이 끊기는 짧은 시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최선의 미디어 기술을 선보이는 집회 현장이었다. 현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접속하여 참여하는 시도를 통해 선교가 단지 물리적 경계를 넘어 디지털 공간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아직도 서구, 영어권 주도적인 구조가 드러나는 점이 있었다. 대회가 글로벌 참여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구와 영어권 중심의 프로그램 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동시통역이 제공되었지만, 여전히 영어가 주된 언어로 사용되면서, 비영어권 참가자들이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참가자들을 선발할 때부터 이미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대회 참가를 주저하게 만드는 이러한 문제는 대회의 국제적 포용성을 더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한국교회가 초청함으로 인하여 한국교회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드러났다.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열렸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역사와 역할이 강조되었으나, 이로 인해 일부 세션에서는 한국교회의 발전상을 자랑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었다는 우려도 있었다. 다행인 것은 일부 참가자들이 목요일 저녁에 “한국교회의 열 두 돌” 발표에서 솔직하게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한 자평과 부족한 점을 시인하였다는 것에 대해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 한국과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해 많은 배울 점이 있음을 모두가 공감하였지만, 한국교회의 성장제일주의가 자랑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겸손하게 자각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자칫 대회의 글로벌 성격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일터선교에 대한 강조는 전방개척선교에 대한 강조 부족으로 나타날 우려

적으로는 유익했지만, 전체적인 대회의 큰 그림과 연결되는 느낌이 부족하다는 평가, 일터 선교가 전 세계를 바라보며 개척 선교로 나아가야 하는 강조점이 나오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대회 이후 젊은 리더십의 부상이 기대된다. 이번 대회는 젊은 세대의 참여를 크게 장려한 만큼, 앞으로 복음주의 선교에서 젊은 리더들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2026년 브라질에서 Young Generation Leaders Gathering을 계획하고 발표하였다. 이들이 앞장서서 2050년을 바라보며 준비된 세대로 일어나기를 기대해본다.

일터 선교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일터 선교 (Work Place Mission)가 강조된 만큼, 앞으로 직장에서의 선교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로 모색할 것이다.

전방개척선교와 미전도 종족에 대한 재강조가 필요하다. 대회에서 다소 소홀히 다뤄진 전방개척선교에 대한 관심이 대회 이후 다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일터와 교회의 근처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강조가 의도적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 관심을 흐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전히 복음 전파의 핵심 과제이므로, 이에 대한 자원과 전략이 더욱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4차 로잔대회는 마쳤지만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젊은 리더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대회에서 강조된 젊은 세대와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젊은 리더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선교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일터 선교 전략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Work Place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전략을 공유하며, 일터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교 프로젝트나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의도적 전방개척선교의 강조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일터 선교뿐만 아니라, 전방개척선교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한다. 미전도 종족에 대한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자원과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선교 플랫폼 강화가 시급하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선교의 가능성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선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선교는 총체적이고, 협력적이어야 하며, 의도적 개방성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dr.yongcho@gmail.com



가 있다. 일터 선교와 평신도의 선교 참여가 대회의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면서, 전방개척선교와 미전도 종족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졌으며, 전통적인 장기선교사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비록 마지막 시간에 로잔의 총재인 Michael Oh의 두 번째 발제에서 전방개척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대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졌다.

25개 겹으로 나뉜 분야별 통합 부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회는 다양한 주제로 25개의 겹으로 나뉘어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세션 간에 통합적인 흐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다. 각 세션이 개별

2019년 마닐라에서 모였던 글로벌 일터 포럼 (Global Workplace Forum)에서부터 준비된 일터 선교 헌신자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더욱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터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닫히지 않아야 한다.

디지털 기술이 선교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대회 이후 디지털 선교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교회와 선교단체들은 소셜 미디어, 온라인 콘텐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C.S 루이스의 생애 산책(2)

강태광 목사
(월드케어USA대표)



인문학자 C. S. 루이스

지역과 시대를 넘어 소통하는 C.S. 루이스의 힘은 인문학이다. 그는 준비된 인문학자다. 그는 고전어와 고전학 그리고 철학을 전공했다. 그는 이런 과목들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탁월한 성적으로 공부했고 이런 과목들을 교수로 가르쳤다. 루이스의 인문학적 소양은 대단하다.

루이스가 탁월한 인문학 소양을 갖게 된 이유는 그의 재능, 성장 과정, 학교 그리고 평생을 통하여 쌓은 루이스 노력의 종합이다. 이렇게 쌓은 루이스 인문학은 루이스를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요 설득력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였다. 루이스가 인문학적 소양을 쌓은 과정과 내용을 정리한다.

첫째로 C.S. 루이스는 문학가다. 루이스는 문학적 자질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아버지 알버트 루이스(Albert Lewis)는 1881년 벨몬트 문학

회에 가입하여 왕성한 활동을 했다. 알버트 루이스는 문학회 안에서 연변이 탁월하고 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는 평판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루이스 어머니는 종종 지역 주간 신문에 기고하는 향토 작가였다.

루이스는 부모님 재능을 물려받았지만, 루이스 자신도 열심히 글을 썼다. 루이스의 재능과 열정이 결합하여 좋은 작가가가 되었고 다양한 글을 남기게 했다. C.S. 루이스는 기회만 있으면 글을 썼다. C.S. 루이스는 글이나 강연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않았고 정성껏 준비하여 그 원고들을 책으로 출판했다. 그가 출판한 책들 외에도 그가 쓴 수천 통의 편지들이 남아 있다. C.S. 루이스는 평생 쓰는 일을 쉬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문학가적 자질을 인정받는 기회가

있었다. 그것은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에세이 공모전에서 입상한 일이다. C.S. 루이스는 1921년 4월에 옥스퍼드 대학교 총장배 에세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것은 루이스가 학자로, 저술가로 그리고 인문학자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루이스는 글쓰기 실력을 차근차근 쌓았던 문학가였다.

둘째로 C.S. 루이스는 많은 책을 읽은 독서가다. 그는 어린 시절 많은 책을 읽었다. 루이스는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C.S. 루이스의 부모는 루이스가 7세 되던 해 벨파스트(Belfast) 근교에 새집을 지어 입주했다. 루이스의 부모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집 모든 공간에 각종 책으로 가득 채웠다.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형은 이미 기숙학교에서 생활했기에 루이스는 형이 없는 외로움

을 독서로 달랬고, 이 시절에 많은 책을 읽었다. 루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책에 파묻혀 살면서 인문학적 소양을 쌓았다. 루이스는 형의 뒤를 따라 기숙학교에서 생활하였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기숙하였던 물반학교 시절 운동을 못 했던 루이스는 도서관을 피난처로 삼아 책을 열심히 읽었다. 이 시절에 읽었던 책들이 루이스 일생에 큰 힘이 되었다. 그 시절 루이스는 고전 담담 교사 해리 웨이클린 스미스(Harry Wakelyn Smith)와 친해지면서 고전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 스미스 선생은 루이스에게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했다.

셋째로 루이스는 탁월한 승을 만났다. 루이스는 대학입시를 위해 2년 7개월간 윌리엄 커크패트릭(William Kirkpatrick)선생에게 지도를 받았다. 이 기간에 C.S. 루이스의 인문학적 소양은 더욱 함양되었다. 커크패트릭 선생을 통해 논리와 변증법을 배우고, 고전어인 헬라어와 라틴어 그리고 유럽어인 이탈리아어,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공부했다. 아울러 커크패트릭 선생의 지도를 받으며 많은 고전을 읽었다. C.S. 루이스는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 단테와 밀턴을 포함한 여러 작가의 고전을 읽었다.

넷째로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고전학을 전공

했다. C.S. 루이스는 옥스퍼드에 고전학 장학생으로 입학하였다. 그는 고전어와 고전 문학 즉 “리테라이 후마니오레스(Literae Humaniores)”를 전공하였다. 이 과정은 옥스퍼드 대학교가 자랑하는 코스였다. 옥스퍼드 대학교 학부에서 최고의 과정으로 인정받았던 고전어와 고전 문학 과정을 루이스가 공부했다.

이 과정은 과거의 지적 문화적 유산에 직접 참여함으로 정신을 확장하고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하는 과정이었다. “리테라이 후마니오레스(Literae Humaniores)”를 공부하는 옥스퍼드 대학생들은 고전들을 원어로 직접 강독하는 수준 높은 과정이었다. 당시 영국 사회와 옥스퍼드 대학의 고전 인문학에 관한 관심이 확인되는 장면이다.

그들은 “리테라이 후마니오레스(Literae Humaniores)”는 단순한 지식 축적이나 학문적 관심을 끄는 주제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이것은 개인은 물론 영국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해 줄 수단으로 보았다. “리테라이 후마니오레스(Literae Humaniores)”는 지혜로 가는 문이었고 삶의 도덕과 인격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보물 창고로 보았다.

루이스 시절에 이 과정은 까다롭고 광범위해서 다른 과정의 전공자보다 더 오래 공부해야 했다. 루이스는 이 과정에

서 탁월한 성적을 기록했다. 대학교과정의 수료를 결정짓는 세 번의 시험에서 우등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3개 부분 우등(Triple First)생이라고 부른다. C. S. 루이스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시험에서 1등으로 졸업했고(1920), 고대 철학 시험에서 1등을 했고(1922), 영문학 평가에서도 1등이었다.

C. S. 루이스가 이 어려운 대학교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루이스의 인문학적 소양을 잘 드러낸 것이다. 그는 많은 독서와 탁월한 고전어 실력으로 무장한 고품격 인문학자다. C.S. 루이스는 인문학적 소양으로 인생을 통찰하고 기독교의 보편적 진리로 인간의 보편적 관심사에 해답을 제시했다. C.S. 루이스는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다.

루이스는 스스로를 번역가로 칭했다. 그는 신학 용어를 현대적 언어로 번역하는 번역가라고 했다. 그만큼 대중과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C.S. 루이스는 인문학으로 무장하여 고상한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설득했다. 기독교 후기 시대를 맞은 한국 교회가 C.S. 루이스처럼 고상한 방식으로 세상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하나님의 사역방법(삿 7:15-25) 찬 393장

기드온 용사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첫째, 숫자로 일하지 않았었습니다. 300명으로 줄이심을 하나님은 적은 수로도 일하심을 보여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겨자씨와 누룩 운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방법입니다. 믿음 가진 적은 수가 신식 무기를 갖춘 불 신앙의 군대보다 더 강합니다. 주께 헌신 된 소수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영적 지도자에 대한 순종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 용사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시키는 어리석어 보이는 전법을 그대로 순종한 그들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7-9절에 “불인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주권의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이깁니다.

화 진정한 승리(삿 8:1-17) 찬 400장

외적 승리보다 내적 승리가 더 중요합니다. 큰 연합군을 이기는 일보다 내적 분열을 해결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 에브라임 지파와 숙곳 사람들과 브누엘의 불만이 이스라엘의 화목에 금을 내었습니다. 주님의 일은 모두 참여하여 성령의 하나 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외적 전쟁의 승리보다 내적 전쟁의 승리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합니다. 둘째, 기드온의 지혜로 위기를 타개했습니다. 그는 온유한 대답으로 분노를 그치게 하면서 단호한 태도로 전쟁을 거절한 숙곳과 브누엘을 책망했습니다. 주께 헌신치 않는 자는 사랑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를 사랑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주님의 첫 사랑을 기억하며 참된 헌신으로 승리합니다.

수 신앙의 울무(삿 8:18-28) 찬 455장

기드온의 혁혁한 승리에 비해 승리 후의 관리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일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할 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사실을 전한 것은 사사로서 잘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의 말에 버금가는 삶이 따르지 못했기에 작은 울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바친 금붙이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어 이스라엘의 마음을 모으려 했으나 결국 이스라엘로 여호와 경외 신앙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순수했어도 울무에 빠진 것을 보면 하나님 섬기는 방법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 둘을 잘 조화시키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목 기드온의 가정 (삿 8:29-35) 찬 305장

주의 일꾼에게 건실한 가정생활을 요구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기드온의 놀라운 승리에 비해 가정생활은 실패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합니까? 첫째, 부부생활에 실패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둔 것은 창조의 원리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묵인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자녀 양육의 실패였습

니다. 70명의 아들이 첩의 아들과 우애하지 못해 훗날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잔인한 행동은 이스라엘에 큰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셋째, 신실성에 금이 갑니다. 자기 집안이 다스리지 않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여 이스라엘은 우상을 다시 섬기는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나부터 신앙의 분을 가집시다.

금 신앙유산을 지키려면 (삿 9:1-6) 찬 492장

기드온의 헌신 된 신앙의 유산은 거절되고 피비린내 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부패함은 승리를 안겨주어도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바로 과수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지도력의 부재는

나침판을 잃은 배처럼 혼란을 가져옵니다. 셋째,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오프라 반석에서 70 형제를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세겔 사람 역시 이스라엘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고 불의의 탐욕에 맞장구치다가 악한 왕을 만났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토 악령의 역사 (삿 9:7-21) 찬 393장

성경은 말하기를 악한 백성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왕을 허락하시고 탐욕을 좋아하면 탐욕을 택하도록 악령이 발동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할 때 그대로 버려두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악의 일을 무력케 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친히 의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의 탐욕적 모반으로 의가 무너지는 듯했으나 하나님의 의는 궁창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둘째, 선한 양심의 탄식이 갇음을 받

았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은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억울한 일을 알리며 그들을 저주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리는 양심의 탄원이었습니다. 셋째, 깨어진 화목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사사라기보다 일시적으로 허락된 폭군이었고, 그가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분별하여 믿음으로 대적합시다.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3)

제임스 구 목사
(그레이스비전스쿨 대표)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도구 활용



Generative AI (생성형 AI) 도구들에 대한 종류와 목회와 선교적 활용(2편)

3. 음성 생성 도구 (Text to Speech, TTS)

TTS(텍스트 음성 변환) 도구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게 하는 AI 기술입니다. 즉, 텍스트 요청에 대한 음성 응답을 생성하여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 글로 작성된 요청에 구두로 응답하거나 텍스트를 음성으로 재생해주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시각 장애인 이 서면 문서를 청취할 수 있게 하며, 서면 텍스트를 번역하고 그 번역을 음성으로 전송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TTS 도구는 텍스트를 글자 및 글자 그룹, 즉 작은 소리 단위(음소)로 분해하여 억양, 목소리, 톤을 분석함으로써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모방할 수 있습니다. ElevenLabs (<https://elevenlabs.io>)의 음성 생성기 (Voice Generator)는 32개 언어로 고품질의 사람 같은 음성을 제공합니다. 오디오북, 비디오 나레이션, 광고 등 다양한 용도에 적합합니다.

Google Cloud Text-to-Speech는 Google Cloud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텍스트를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변환해 줍니다. 이 도구는 머신러닝 기반의 음성 합성 모델을 사용하여 사람처럼 들리는 음성을 다양한 언어와 음성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가상 비서, 음성 안내 시스템, 오디오북, 고객 지원 시스템, 접근성 도구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VALL-E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최첨단 음성 합성 모델로, 텍스트를 자연스럽게 사람 같은 음성

으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VALL-E는 기존 모델과 달리, 매우 짧은 음성 샘플 (약 3초) 만으로도 특정 화자의 목소리를 복제하여 거의 동일한 음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사실적인 음성 합성이 가능해 음성 복제와 합성 기술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TTS 도구의 교회 및 선교적 활용방안으로 예배 준비 시 성경 구절이나 설교 내용을 미리 음성 파일로 변환하여 청중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나 성경 공부 자료를 팟캐스트나 오디오 메시지로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적 활용 측면에서는 인터넷이 제한된 지역이나 글을 읽기보다 듣는 것이 익숙한 선교 지역에서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를 다양한 언어로 자동 번역하고 이를 음성 파일로 생성해 현지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는 콘텐츠 제작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TTS 도구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기반으로 비디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Text to Video(TTV)나 Image to Video(ITV) 같은 AI 도구들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디오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비디오 콘텐츠에도 AI가 제공하는 목소리를 적용하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모델링하여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들은 YouTube 및 기타 소셜 미디어에서 전도와 선교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dr.jameskoo@yahoo.com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 샌퍼드 예배당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 윌리엄스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로잔 4차 대회 참석 후기



백운영 목사
(GP 선교회)

지난 9월 22일 오후부터 28일 오후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렸다. 개인적으로는 4번의 대회 중에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차 대회를 제외하고 다른 3번의 대회에 참석했다. 제2차 대회 때는 홀리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로잔 조직위원회에 편지하여 참여시켜 달라고 했더니 로잔 스텝으로 허락해 주어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후에 2006년에 로잔 디아스포라 위원회의 초청을 받고 디아스포라 분과 위원이 되어서 다른 위원들과 책을 집필하여 2010년 제3차 케이프타운 대회에서 발제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2017년 필라델피아 영생 장로교회 목회를 할 때 당시에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던 Michael Oh 총재로부터 Lausanne Global Council 멤버로 추대되어 지난 6년간 대회를 함께 준비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런 이유로 이번 4차 대회는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대회가 되었다. 이번 대회는 오늘날 세계의 기독교 모습이 비교적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대회를 참석 한 5천 명이 세계 200개국을 대표하는 각계종과 여러 사역의 대표자들이 되었으며 대회에서 앉아서서 발제했거나 주제를 이끌고 갔던 강사의 큰 비중이 비서구 사역자들로 채워졌다. 대회 선언문도 서구 주도적인 신학자 몇 명의 작품이 아니라 신학분과위원들 포함해 모든 대륙 지도자를 30여 명이 참여했다. 따라서 50년 전 서구 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1차 로잔 대회와 달리 이번 대회는 Global South 교회와 사역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반영된 오늘날의 변화되는 선교 현상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로잔 4차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공통으로 동의한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며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를 양성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하는 협력의 장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는 것이다. 대회가 마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다 취합되어 선포된 “서울 선언문”이 역사 속에서 재조명 될 것이다. 앞으로 제4차 대회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고 또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물론 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의 생각과 다양한 폐이 과거 발표되면서 의견과 의사소통에서 차이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5년간 준비하면서 항상 말씀으로 돌아오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서로 화합하는데 힘쓴 결과 가장 필요한 때에 세계의 복음주의의 진영을 하나로 묶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느낀다.

그렇지만 대회가 다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특히 한국교회의 극히 폐쇄적인 기독교 소수 그룹의 거친 공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로잔 대회는 국제적인 모임이고 각 나라가 가진 신학적 경계가 조금 넓은 편이다. 물론, '74년 처음 로잔 대회 때 나왔던 로잔 연약에 이미 동의한 복음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영혼 구원과 교회의 선교를 우선시하는 모임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이슈 또한 성경적으로 답을 주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 그리고 로잔 연약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복음적이라 하더라도 각 나라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하여는 해석과 강조점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되 비난하지 않고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 시대적인 강조점을 도출해 내는 공간이 바로 로잔이다. 이번 로잔 대회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작용했기에 200개국의 5천 명이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팀이

크가 돋보였다.

이번 로잔 4차 대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용했던 두 개의 중요한 단어는 협력 (Collaboration)과 다 중심적 (Polycentric) 이었다. 그동안 협력 (Partnership)을 이론적으로 많이 논했다면 이제 서구와 비서구를, 남반부와 북반부를, 교회와 선교 단체를, 그리고 각 국가와 지역에서 다양한 사역을 실제로 연결하고

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이고 모임이 시너지를 만들고 그 여파가 세계 전역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세계 교회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자 하나가 되어서 지난 50년간 멸실 상부하게 선교적 운동으로 이어져 왔다. 로잔 운동은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운동이지 결코 신학적 조직이 아니다.

이번 4차 로잔 대회 때는 한

신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 그리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로잔 대회에 성 소수자나 LGBTQ를 위한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이 단체는 성 소수자를 대변하는 단체가 아닌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교회로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세계의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조차 포용하려는 마음을 이단 시비로 먹칠을 하려고 한다. 세계의 그 어떤 교회도 이런 트집을 잡는 곳이 없는데 유독 한국교회만 주장하고 있다. 항상 흑백 논리로 인해서 전체를 보려고 하지 않고 조그만 것을 크게 확대해서 주장하는 자들이 너무도 안타깝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펼치고 유튜브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총격적이게도 복음주의 교단에 속하지 않거나 복음주의로부터 논란의 인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앞장서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로잔 운동은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운동이지 결코 신학적 조직이 아니다. 1974년 이 운동을 시작하신 Billy Graham 목사님과 John Stott 목사님의 의도가 지금까지 변질되지 않고 조직이 아닌 운동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로잔은 제도화가 되지 않고 정기적인 대회도 기약 없이 필요할 때,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그 일을 진행하실 때 전 세계가 대회로 모여 결집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퍼져가는 운동으로 계속 사용될 것이다. 2010년 케이프타운 3차 대회 때는 아프리카 대륙의 특성상 의도적으로 가톨릭, 정교회, 콥틱에서 대표단이 초청되기도 했다. 이것은 그들의 신학에 동조한다기보다는 다른 형제들을 복음 안에서 포용하려는 마음이 돋보인 것이고 당시 그런 목적이 분명히 달성되었다고 본다.

로잔은 온전한 복음의 선포를 항상 주장한다. 이번 로잔 서울대회의 슬로건은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이다. 미혹의 시대에 여둠을 밝히는 예수의 빛을 드러내자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북미와 호주에서 5천 명이 함께 모였고 결단하여 힘을 얻고 각 나라로 다시 돌아갔다. 이제 로잔은 오해하고 반대하는 자들조차도 포용하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받아들이야 한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gypaek@hotmail.com



로잔 디아스포라 위원회

힘을 주고받으며 구체적인 사역적 방안으로 만들어가는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이번 대회는 네트워크를 위한 25개의 사역의 장을 (GAP) 매일 오후에 관심자 들끼리 함께 모이고 협의하는 구체적인 시간이 있었다. 이런 모임에서 만나 협력을 이루고 함께 자원을 나누는 일은 세계 복음화를 훨씬 빠르게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 분명하다. 또 하나의 새로운 단어는 다 중심적 (Polycentric)이다. 그동안 서구 중심의 선교가 세계 다른 지역인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제 서서히 그 중심축이 비서구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번 대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다. 특히 다 중심적이란 서구를 대신하여 비서구가 선두주자로 뒤바뀐 것이 아닌 세계 여러 지역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가 된다. 선교의 중심이 다양하다는 의미는 이제 중심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세계 교회는 어떤 지역이나 교회나 신학이 중심이 될 수가 없으며 그래서 서도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심이며 모든 교회는 예수 안에서 동등한 동반자 관계가 된 것이다. 이처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때 진정한 세계 모든 교회의 협력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로잔은 처음 시작부터 예수

국의 일부 소수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매도되고 대회장인 송도 컨벤시아 앞에서 피켓을 들고 확성기로 대회를 보이콧 하는 우스운 일이 일어났다. 외국인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때론 잘 알아듣지도 못할 영어로 성도하는 모습에 각국 대표들은 왜 그런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그런 모습에 의아해하며 한국 참석자들에게 묻는 일들이 일어났다. 본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극히 폐쇄적이고 본질을 오도한 모습을 심히 아픈 마음으로 보게 되었다. 로잔을 반대하는 자들은 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둘 다 역사나 배경을 공부하지 않고 전체를 보지 못한 못된 학생의 티를 세계 교회 앞에서 툭툭히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로잔에 피켓을 들면서 반대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하나씩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로잔 대회 중 저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관하여 분명하게 하나의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뤄진다는 성경적 진리를 다시 확인시킨 것이다. 동성애나 성의 개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한 죄이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로잔을 항상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

돌아오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 단체이다. 로잔은 성경적인 성 윤리를 고수하지만 잘못된 성 중독에 빠진 자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가지도록 돕는 선교 단체인 것이다. 한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국제적인 모임에선 사역하는 자들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고 다양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의 진리를 타협하면서까지 대표성을 넓히지는 않는다. 분명한 것은 성 소수자였던 죄인이 회개하여 다시 교회 안에 돌아오는데 국제적인 사역자들의 기준은 열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새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성 소수자들도 회개하여 바른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할 때 교회는 이들에게 문을 열고 당연히 받아줘야 한다는 태도를 강하게 주장한다. 이것이 잘못 알려져서 성 소수자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로잔으로 한국 교회 소수의 배척을 받게 된 것이다.

둘째, 로잔 대회는 WCC 운동의 일환으로 종교 통합을 추구하는 배교 집단이라는 비판 공격이다. 한국 대회장 이재훈 목사님과 유기성 목사님을 배교의 문을 여는 이단자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한국교회는 충분한 검증 없이 조그만 것 하나를 붙잡고 크게 확대해서 주장하려고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7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 3페이지 (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마감은 2024년 10월 31일(오후 5시)(미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심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남북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도서구입처	미주내 기독교 서점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임승래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도서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테데우스 윌리엄스, 두란노



어쩌다 거룩하게
나디아 볼즈웨이, 윤종석 역



일상의 유혹
손성현, 토기장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최상훈, 규경



시대를 읽다 성경을 읽다
박영호, 복있는사람



생명의 언어로 가는 믿음의 성화
이민비, 시시들



특별한 빛을 보내오는 사람들
김기억, 도서출판 KMC

송찬우 목사의 조각 글

‘청소하자’의 힘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대청소하자"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담임 하였던 김호식 선생님의 이 한 마디 때문에 제 생의 좌우 명이 되었던 말입니다. 김 선생님은 언제나 무엇인 가를 우리에게 시켜야 할 일 이 있을 때, 늘 "해라"가 아니 라 "하자"라고 말씀하시곤 했 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

자고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 고 있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 면서 어린 우리들의 힘이 미 치지 못하는 일은 선생님이 해주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담임선생님은 여 타 "청소해라"하고 교무실에 가서 앉아 있다가 청소가 끝 났다고 보고드리면 와서 검열 하고 가시는 여타 다른 선생 님들과 다르시다는 것을 그 때 알았습니다.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 며, 나도 선생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이 되 는데,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 었습니다. 그런 제가 고등학교, 대학 을 거쳐 정말 선생이 되었습 니다. 저 시골에 있는 작은 중 학교 선생이 되어 한 1년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김호 식 선생님 흉내를 냈습니다. 아이들에게 청소를 시키지 않고 제가 먼저 빗자루를 들 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 러자 아이들 하나 둘이 빗자 루를 들고 제 옆에 와서 청소 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교편생활 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 씀해주신 섬김이라는 것을...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하 나님은 저를 목회의 현장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주 신 목회의 현장에서도 저는 같은 모습으로 섬기고 있었습 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 렇게 섬기는 것이 긍정적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족팔린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다..."고 불평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섬기는 목회를 하려고 힘을 기울였습 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권위 를 내세우거나, 없는 권위를 있는 것처럼 가장하지 않았습 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그렇 게 해보려고 나를 시늉을 내 다가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내려놓은 지가 이제 8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 니다. 그렇게 8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섬겨온 사역을 돌아 보면 그렇게 섬겼던 지난 사 역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온전하지 못한 시늉에 불과했 지만 그래도 대접을 받거나 인정을 받으려고,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흉내 내려



고 했다는 제 자신이 대견하 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에 젖어있는 제게 하나님은 이런 위로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 도다. 내가 그러하다. 14) 내 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 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

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 니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 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 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17) 너 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 이 있으리라"(요 13:13-17).

이성자기자의 바이블 에세이

우리 함께 노래 부르자

사람이 기쁠 때 노래하고, 슬플 때 울고, 즐거울 때 웃으 며 괴로울 때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을 것이다. 사람에게 '감정'이 있 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만 일 사람에게 히로에라의 감정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그런데 오늘날의 인간들은 감 정을 잃어가고 있다. 전자 로 봇 인간과 AI 같은 무감각하 고 냉혈한 현대인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나는 서글픔을

역시 '노래와 춤'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 기 전에 노래부터 배우며 노 래로서 마음에 느끼는 감정을 나타낸다. 그런 의미에서 노 래와 춤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원초적인 행동이며 원시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기쁘고 즐거울 때 노래하고 춤을 추지만 슬 플 때나 괴로울 때 노래를 부 르기도 한다. 그래서 기쁜 노 래도 있고, 슬픈 노래도 있다.

일이 우수수 떨어지는 산길을 걸으며 노래를 부른다면 얼마 나 좋을까? 기쁘거나 슬프거 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편 안하거나 불안하거나 사람에 게는 노래가 있어야 한다. 자 기 자신의 노래가 있어야 한 다. 자기 혼자만이 부르는 노 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 랑하는 사람과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있어야 한다. 그 러면 이 가을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를까?

노래는 즐거움의 노래가 될 것이며, 그 노래가 바로 찬송 이 될 것이다. 마음이 슬퍼질 때 위로의 노래를 부르자. 아무리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슬픈 일이 나 괴로울 때가 없으란 법이 없다. 우리가 세상 살기가 힘 들고 슬프고 괴롭다고 한숨만 쉬고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불러야 한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역울하게

노래를 부르자. 세상에서 한 난과 핍박을 당할 때 부르는 노래는 '승리의 노래'가 된다. 환난과 핍박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요, 이 고통을 다른 힘 으로도 이길 방법이 없다. 그 러나 환난 때에 노래를 부르 면 이 노래가 승리의 찬가로 바뀌고 용기를 북돋우어 승리 하게 될 것이다. 순교자 주기 철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 고 옥고를 치르며 못이 거꾸 로 박힌 판 위를 맨발로 걸어

않고 끝까지 걸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 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불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 랑이 언제나 넘치웁니다...(찬 송가 491장). 나는 생각한다. 아마 주기철 목사가 이 노래 를 부르지 않았으면 끝까지 견지 못하고 도중에 쓰러졌을 것이라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엡 5:19)

금할 수 없다. 사람들은 마음에 느끼는 감 정을 얼굴로 표현하고 몸으로 도 표현한다. 그리고 여러 가 지 언어로 자기의 생각이나 뜻을 나타내지만 가장 자연스 럽고 손쉬운 표현의 방법은

괴로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 래도 있고, 단합을 과시하거 나 용기를 북돋우는 노래가 있고, 승리의 노래도 있다. 가을은 노래를 부르고 싶은 계절이다. 코스모스가 피어있 는 들길을 지나며, 낙엽 나뭇

마음이 기쁠 때 감사의 노 래를 부르자. 출애굽에서 탈 출하여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 낸 이스라엘은 구원의 기쁜 노래를 불렀다. 오늘 우리도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은 기쁨 의 노래를 부르자. 이 기쁨의

매를 맞고 옥에 갇혔으나,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렀다. 슬플 때 부르 는 노래는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또 슬픔을 당한 사람에 게는 무한한 위로가 된다.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때

가도록 강요된 적이 있었다. 이때 주 목사는 노래를 불렀 다. 주 목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으며 끝까지 걸어갔 다. 노래를 부르며 걸어갔다. 주 목사의 발바닥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는데도 넘어지지

노래는 고통을 극복하고 천 국의 기쁨을 소유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 이 가을에 우리 함께 노래를 부르자!! sjkcdc@hanmail.net

1st Event

SINGLE CHRISTIAN
PHOTO CONTEST
SUBJECT: MY CROSS
DEADLINE: Dec 31, 2024

FOR THE KOREAN SINGLES

And 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that the man should be alone; I will make him an help meet for him.(Genesis 2:18)



QUALIFICATION: Christian Korean Single Adults
REGISTRATION: www.CKsingles.org
DEADLINE: December 31, 2024
SUBMISSION FEE: \$10

AWARDS: Gold Medal \$2,000
Silver Medal \$500
Bronze Medal \$200
and Many More Prizes



www.CKsingles.org



이 Dating Site에서 젊은이들이 서로 대화하고 또 결혼까지 하게되어 좋은 기독교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될런지요. 젊은이 뿐만아니라 중년 그리고 동성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욕에서 조한진 목사, 이희상 장로 드림

SUPPORTING ORGANIZATION: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뉴욕지구한인교회 협의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뉴욕한인회)

www.CKsingles.org
싱글 크리스천 코리안들의 만남

등록하셔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 2:18)

비영리 단체 | 무료서비스

www.CKsingles.org
Nonprofit organization | Free Service

www.CKsingles.org
A Blessed Place for Christian Korean Singles

Register and meet your soulmate!!

And 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that the man should be alone; I will make him an help meet for him (Genesis 2:18)





Pastor Christopher Cho
646-369-7124

hello@cksingles.org